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4



지/역/사/의/특/약/△/인/업/의

서울시 중구 경운동 23-41 여심당에서 펴냄 (우) 100-631 ☎ 02/275-6305 FAX 275-6306 (067) (출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시입니다.

이제보우세 클리어

호출 1.22

<40E 58>



<장부(주)>

이 책은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네 아이들

96.4월호

<통권 39호>



<표지사진>

요즘 아이들은 여럿이 함께 노는 것이 익숙치 않다. 남매가 드물고 동네의 또래를 사귀는 시간이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저 밖으로 나와도 혼자 노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아이들에게 또래를 찾아주는 것, 다름아닌 어른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일하며 생각하며 / 3

각 당의 총선정책

문진영

총선맞이 기획 / 6

하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남미영

15대 총선, 각 당에서 바라보는 "보육"

위양자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바른 선거를 위한 제15대 총선 행동지침

참여연대

건강하게 삽시다 / 40

감기에 대하여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방과후 아동지도 / 45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조인숙

좋은 그림책 소개 / 49

꿈의 동물원 1.2.3.

이현경

박팔놀이 / 51

밖으로 나가 놀자구요

전경숙

세노베 배오기 / 53

짜·임·새

새날을 여는 사람들 / 55

황미혜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은 잃지 않았지요

작은 계획 / 59

김태일

쉽게 배우는 사진.비디오 교실

통신 이야기 / 61

유정은

컴퓨터 통신, 아직도 외면하고 있습니까?

양귀은 작비 / 63

김영배

보은의 징검다리

변미양의 세상일기 / 66

변미양

비님, 봄비님이 오시네...

박아소별곡 / 67

박정애

꽃밭을놀이방에서 생긴 일

육아일기 / 69

송필이가 놀이방엔 가요!

오빠들의 목소리 / 72

보육계동향 / 73

소식과 소식 / 75

편집부에서 / 79

1996년 4월 합본호(통권 39호)/
첫발행1992.5.25./퍼넌곳지역사
회탁아소연합회/퍼넌이남미영/북
은이주혜민, 박정애, 강애란, 변미
양, 황미혜/퍼넌날1996년 4월 1일

읽으며 생각하며

각 당의 총선정책

문진영 /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소위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치적 신조로 하는 사회에서 모든 정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하기 마련이고, 이번 15대 총선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다.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달콤한 정책의 보따리를 풀어 놓으며, 마치 자기 당을 지지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당장이라도 국민의 생활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러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였지만, 선거시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어 실질적으로 삶의 수준이 향상되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결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이다. 오히려 수준 낮은 정치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수준낮은 정치인과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갖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의 일단을 이번 총선에 임하며 발표한 각 정당의 정책 보따리를 풀어보며 추적해보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밝히고 그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거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감정의 심화와 여러 낭비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몇년에 한번씩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하며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부수적으로는 평소에는 워낙 높아져 가깝게 가기도 부담스러운 높은 양반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통쾌함일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에만 반짝하다가 마는 이러한 일시적 통쾌함 이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오히려 수준 낮은 정치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주권국민으로서의 보람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각 정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을 보면서, 여기에는 일단 평소에 학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이 포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전혀 반갑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선거철에는 어떤 정당이든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관대한 정책을 공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책을 나열하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가능한 정책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 임하여 발표한 각 정당의 보건·복지 정책에 전혀 신뢰를 보낼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 정당은 나열적으로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만을 하였을 뿐이지, 정책의 시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 규모에 대한 파악이 거의 안 되어 있다.

민주당안의 일부에서만 매우 미흡한 언급이 있을 뿐, 거의 모든 정당이 약속이라도 한듯이 전혀 재정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당의 무책임한 정책인 셈이다. 이렇게 개별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파악이 안되어 있으니 당연히 전체 추가재정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따라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언급은 아예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민주당안에서 국방예산의 삭감과 선심사업비의 삭감을 통해서 2000년까지 GNP의 5%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더우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GNP 대비 얼마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나 정부측에서도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갑자기 GNP의 5%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의 선거철 정책제시가 현실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장미빛 선심공약만을 일삼아왔는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역시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알력의 문제라든지, 재정확보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정책의 시급성과 현실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각 당의 정책을 보자면, 전혀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이 거의 없다. 즉, 각 정책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학생이 숙제로 급조한 보고서를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 공당(公黨)의 책임 있는 정책발표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우리가 한 집안의 가게를 이끌어갈 때에도 제한된 수입의 범위내에서 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소비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하물며 국정의 운영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판에서 이러한 아마추어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을 선거공약이라고 내놓는 정당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암울하기만 하다.

셋째로, 왜 이러한 전근대적인 정채행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아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한다.

정치인이 선거판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며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는 마치 기업인이 이윤을 추구하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이 정도의 형식적인 정책만을 무책임하게 발표한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건 득표수준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당의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정책의 참신성이나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때문이 아니라,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선심성 공약(空約)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알잡아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급한 수준에서 선거가 이루어져 왔고 이번 선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은, 아마도 이러한 선거철 공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막상 선거구민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공표하여 많은 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단을 발족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심성 공약만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는 우리 나라 정당의 행태에 채기를 박아야 한다.

연전에 어느 기업인이 우리 나라의 정치수준이 4류라고 발언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기업인이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번 총선에 임하여 각 당이 제시한 정책의 수준을 보면 그러한 평가를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총선맞이 기획

-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 15대 총선, 각 당에서 바라보는 "보육"
-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
- 바른 선거를 위한 15대 총선 행동지침

종선맞이 기획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남미영 / 본회 회장

본지표는 3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김영삼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본회 남미영회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전문을 다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살펴보면 합니다.

서론

현 정부의 3년 여성정책 평가의 주제중 '학령 전후의 아동보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부분을 평가하게 되었는데 아동보육의 개념과 범위가 무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동보육의 측면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영유아의 보육문제와 취학아동의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을 위한 제도의 문제, 학교급식의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주제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때문에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중 단기적 과제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부분계획,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교육부의 학교급식 발전방안 등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I. 보육정책

1. 평가에 들어가며

8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정도의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육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는 '90년을 전후하여 필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동안 민간 보육단체와 일부 여성단체가 소외되고 방치되어 온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담당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보육문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몇 년간 본격적인 국가의 보육정책 실시에 의해 아동방치의 폐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지역에 상당한 수의 보육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그간 여성의 권리를 중심에 두었던 보육이념에서부터 이제는 보다 중요하게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까지 그 폭이 넓혀져 왔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다른 사회복지 부문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고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육아문제 해결은 보다 지속적인 요구를 받게될 것이다.

보육사업이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었고, 또한 국가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진행시켰다면 앞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 속에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보육사업에 있어서 양과 질의 두 측면은 형평성을 유지하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보육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아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평가의 기준은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정부가 영유아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국가의 의지가 어떤 측면에서 반영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2. 보육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1) 대선공약과 제7차 5개년 계획

< 대선공약 >

● 일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가. 현재 6천2백여개소의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4천개소로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교원탁아소를 설치한다.

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라.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한다.

< 제7차 5개년 계획 >

● 보육서비스의 확대

가. 지역보육의 확대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신규설치

- '92년까지 극빈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87,0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95년까지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을 포함한 일반 보육대상아동까지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역보육시설의 확대전망

(단위:개소)

연 도	'92	'93	'94	'95
신규설치보육시설	50	100	100	100
기존시설 전환	485	270	200	-

*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 지역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구·교재 개발·보급,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료 상한선 고시, 정부지원 범위 점차 확대

나. 직장보육의 확대

* 중소, 영세기업체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에 보육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충

*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 공공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적극 유도

*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체에 대하여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다. 가정보육의 확대

*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 확대 설치

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 중앙 및 지방보육위원회 설치

* 시·군·구 단위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2)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보육부분(1995년)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 보육아동을 둔 30-40 가구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식의 보육시설에 건물임대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96년도 복지부 지침에 공동협동조합 설치 및 지원근거 규정을 도입
- '96 - '97년도에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 강구

(2)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 종교시설의 보육시설화를 제약하는 예로 요인을 제거
- 시설비 지원규모 상향조정 : 1개소당 2,500만원 → 5,000만원
- 2,100개소의 종교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보

3. 평 가

1) 전반적인 보육정책

< 보육현황 >

'9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8,129개소이고, 보육아동수는 269,538명으로 92년과 비교할 때 약 50%가 늘어난 추세이다. 특히 '94년과 대비해 볼 때 시설수는 16.5%, 아동수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 102만명중 '95년 5월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연도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92	'93	'94	'95. 1/4	'95. 2/4	비고('94. 대비)
시설수	4,513	5,490	6,975	7,643	8,129	16.5%증가(1,154개소)
아동수	123,297	153,270	219,308	248,656	269,538	23%증가(50,230명)

<표2> 보육대상 아동 추계

(단위:천명)

구 분	대 상 아 동		
	1995	1996	1997
0~5세아동	3,977	3,987	4,002
취업모의 0~5세아동	1,810	1,828	1,846
보육대상아동	1,021	1,031	1,041

<표3> 보육사업 예산변화 현황

(단위:억원)

년 도	'93	'94	'95	'96
총 예 산		1,365	2,000	2,375

< 보육사업예산 >

보육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볼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증가비율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내실을 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보육비용 >

보육비용은 법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어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공립시설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민간법인시설의 경우 시설설치비, 운영비, 개보수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전적으로 부모부담이어서 부모의 부담이 크고 운영자의 부담 또한 가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별 지원의 내용은 생활보호자, 편부(모)가정의 자녀는 전액면제,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

게는 <표4>의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단가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96년 복지부 지침을 보면 아동별 지원의 대상을 57,500명(법정저소득층 10,000명, 기타저소득층 47,5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4> '96년도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가구원수	2인까지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까지	9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110만원까지

< 민간보육시설지원 >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86%(법인시설포함)로 전체 보육아동의 70%를 보육하여 보육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5 참조>

그러나 이렇듯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95년에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처음이었고 '96년도 또한 전체 보육예산 2,375억원중 민간·가정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다. 이외에 연말 불용예산이 정부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별도 지원되던 것이 '93년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에도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고정예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정부의 보육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의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5> 설립주체별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계	개인	단체	법인		
시설수	8,129	1,004	3,639	2,725	23	891	63	3,423
아동수	269,538	78,618	152,226	76,520	863	74,843	1,580	37,1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보육정책안은 단기적으로 볼 때 시설의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수립이 없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전체적으로 공공보육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보육정책의 과제

(1)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96년도 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 약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7,590개소를 확충시킴으로서 아동 427천명을 추가보육하여 저소득층 자녀등 요보호대상 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다.

<표6>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단위:개소)

구 분		'95	'96	'97	계('95~'97)
계		2,246	2,696	2,648	7,590
공공 (국고보조)	소 계	1,000	1,050	1,100	3,150
	신 축	150	150	150	450
	증개축	75	100	125	300
	사회복지·종교·학교시설부설	775	800	825	2,400
직 장	소 계	446	446	548	1,440
	공공기관 내 기업	76	76	88	240
민 간		800	1,200	1,000	3,000

이는 '97년까지 전체아동의 60%를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 '93년도 보육비를 13%와 비교한다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추진실적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97년까지 보육기반을 완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율이 60%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수요 충족물이지 보육시설이 생길 경우 일하겠다는 막대한 잠재수요에 대한 대안이 포함된 확충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인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 보육시설의 확충이 대도시중심의 행정편의적이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표7> 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의 보육시설수는 4,060개로 전체 보육시설수 8,129개의 50%를 차지한다. 즉, 수도권지역에 전체 보육시설의 50%가 몰려있고 나머지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아동의 경우는 대도시의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시설 이용에

있어서 훨씬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이고 동일한 시의 경우도 구별로 보육시설 수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공립시설 신축시에는 거리 제한이 없고 지역수요에 의존하기 보다는 설치할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무작정 설치에 따라 인근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표7> 지역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95.2/4분기 현재)

구분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육인 시 간	계	8,129	1,880	668	448	458	246	360	1,693	272	285	240	249	259	302	615	134
	국공립	1,004	392	72	24	29	14	14	118	51	35	28	31	38	63	87	8
	개인	3,639	477	396	254	224	94	123	785	157	154	163	134	149	134	302	93
	단체	2,725	403	330	184	208	28	98	728	75	99	88	36	46	94	256	52
	법인	23	5	1	0	0	11	0	4	1	0	0	1	0	0	0	0
	직장	891	69	65	70	16	55	25	53	81	55	75	97	103	40	46	41
	가정	63	23	6	6	6	2	4	5	1	1	1	0	0	4	3	1
보육아 동	계	3,423	988	214	164	199	136	219	785	63	95	48	84	72	101	223	32
	국공립	288,538	63,251	23,214	13,980	12,085	10,261	7,411	37,954	11,635	12,388	11,137	13,115	15,732	12,089	19,759	5,996
	개인	78,618	35,019	6,802	1,653	2,612	1,337	651	7,621	3,345	2,622	1,817	2,095	2,570	3,790	6,249	435
	단체	152,226	16,430	13,819	10,766	7,039	7,464	4,403	22,258	7,643	8,419	8,764	9,989	12,427	6,894	10,824	4,997
	법인	76,530	11,914	7,937	4,002	5,426	2,522	2,251	18,308	2,051	3,591	2,540	1,870	2,438	2,969	7,085	1,636
	직장	863	156	31	0	0	413	0	164	68	0	0	31	0	0	0	0
	가정	74,843	4,360	5,851	6,764	1,613	4,529	2,242	3,786	5,524	4,828	6,224	8,088	9,989	3,935	3,739	3,371
보육인 간	계	1,580	462	70	67	113	36	106	191	35	122	39	0	0	166	76	97
	가정	37,114	11,340	2,523	1,504	2,322	1,424	2,161	7,494	632	1,105	517	1,031	735	1,249	2,610	467

즉, 전체 보육시설의 13%에 불과한 농어촌 지역에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모델이 나와야 하며, 0.7% 뿐인 직장보육시설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체제와 획기적인 예산투자계획 속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시설확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분히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획일화된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적극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각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보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아동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비용부담이 수혜자 부담원칙이어서 기본적으로 공보육적 성격보다

는 사보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보육아동의 50% 이상을 돌보게 될 민간·가정보육에 대해 <표6 참조> 정부는 95년에 처음으로 교재교구비를 책정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는 하나 장차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보육의 위치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방향이 다분히 시설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면 동일한 아동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던지 동일한 서비스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아동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시설의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낙후시키는 결과이다.

아동중심의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사적 서비스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기적인 확충을 통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려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보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버리려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한 방치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예산편성을 함으로 많은 민간시설들이 준공공적 영역의 보육을 담당하도록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제는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을 기할 때이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단기적인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는데, 확충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안에서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과 종교단체시설 활용방안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민간보육시설에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육아형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식 보육시설이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내오기 위해서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는 특정한 부문이나 종교단체를 통한 단기적인 시설확충 지원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민간보육시설의 기능이 사보육의 차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성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보육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권익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96년도 복지부 지침은 국공립시설의 교사위주로 개편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많은 민간시설에서 보육사업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처사이며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면서도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II.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는 기혼여성의 증가 비율이 높아지고 아동의 양육이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뿐 아니라 취약아동의 방과후 보호·지도의 문제를 위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뿐 아니라 아동들이 방과후에도 전인적인 인격향상을 위한 장으로,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가족서비스적 내용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로 선정된 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관하여 '95년 10월 ~ '96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2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고 지난 3월 7일 정무장관(제2)실 주최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청회를 통해서도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토론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쟁점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쟁점들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과제 중 - 방과후 아동지도 부분 - >

- 필요성 : * 부모취업시 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주부들의 취업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 각종 안전사고 및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 위험성
 - 국민학생중 약 70~80만명이 3~7시간을 보호자 없이 방치
 - 맞벌이 부부의 82.4%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 제기
 - *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는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주부들을 활용함으로써 여성고용증진 효과도 달성
 -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의 아동지도 및 보호가능
 - 지역 내에서 어머니와 아동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가능
 - 양질의 아동지도 서비스 가능

- 아동지도사 보급확대로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정책방향 : * 방과후 아동지도 시범시설 운영: '95.10.20~12.30까지 2개월간

- 현장에서 직접 시범적용하여 도입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지원사항 파악

- 주관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 교육기간 2개월, 지도교사 2인, 하교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필요한 설비와 지도에 사용할 프로그램 구성

- * 시범교실 운영위원회 구성

- 교장, 교감, 학교학부모대표, 방과후지도교사, 대상아동의 학부모로 구성

- 시범교실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건의 및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

- * 실시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유도

- 시범교실의 실시과정, 실시효과 등을 평가하여 활성화 모색

1. 정책결정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방과후 아동지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졸속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된 것일 뿐 대선공약이나 기타 다른 여성정책이나 교육정책 속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경제정책과 맞물려 갑자기 들쭉날쭉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있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주체인 아동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는 이미 저소득층 지역에서 그 요구를 받아 운영해 온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기왕의 사례들에 대한 수렴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책 수립과 정상에서 관주도식의 행정을 극복하지 못함이라고 본다.

2.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할 부서의 문제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3장 1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이 조항은 지방보육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95년말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로 선정이 된 이후 '96년 1월 1일부터 전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이 12세까지로 연장되었다('95.12.15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거 중앙보육위원회 의결사항임).

이는 그동안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미약하나마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정부에서 방과후 아동지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지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취학아동들이기에 취학전 아동의 보육문제를 제도화한 영유아보육법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제기된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복지적 차원, 교육적 차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차원 등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가족서비스적인 성격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만18세까지의 아동에 관한 복지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방과후 아동지도의 내용을 두어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특성상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협조가 요구된다.

3. 방과후 아동지도의 정책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이제 그 단초가 마련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분히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데 우려점이 있다.

방과후 아동보호 역시 영유아보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제반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II.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해당연령에 제시되어 있는 영양권장량의 1/3선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지식과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이다.

1.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부정책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실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관련기관의 정책건의 등이 발표되었다.

1) 교육부의 학교급식 발전방안

- '97년까지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전면화대 실시
 -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중('92-'96)학교급식 시설완료
- 발전방안
 -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좋은 식사를, 더욱 교육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4대 발전방안 수립을 실천
 - ①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 ② // 제도운영의 효율화
 - ③ // 교육효과의 극대화
 - ④ // 중요성의 홍보강화

2)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과제 중

-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
 - 필요성 * 자녀의 도시락문제의 해결 없이는 원만한 취업활동이 곤란
 - * 공동식사를 통한 학생간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바른 식생활습관 유도
 - 확대방안 * '97년말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
 - *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는 '98년까지 대상학교의 절반 정도 실시
 - * 학교급식시설·설비비 예산을 증액
 - * '96년 1,632개의 초등학교에 새로 급식시설 설치
 - *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2. 학교급식의 실시현황

정부는 1997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 실시, 1998년도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절반 정도의 실시를 목표로 급식사업을 추진 중인데,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급식 실시학교는 5,772개교 중 3,314개교로 학교수대비 57.4%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 390만5천명 중 150만7천명이 급식수혜를 받고있어 학생수대비 38.6%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96년도 급식신설예상학교수는 977개교이다.

<표1> 교육부 발표에 의한 연도별 초등학교 학교급식 추진실적률(%)

년 도	'88	'89	'90	'91	'92	'93	'95	'96
학교수대비	8.9	9.5	10.2	13.3	16.3	22.3	38.2	57.4
학생수대비	5.3	5.4	6.1	8.2	10.2	14.5	24.0	38.6

<표2> 지역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94년 현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학교수대비	39.2	22.4	13.9	18.8	10.1	26.4	20.8	48.8
학생수대비	28.5	17.7	8.2	7.8	7.2	17.0	9.2	47.2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대비	42.0	42.9	40.0	51.0	49.0	29.2	85.8	38.2
학생수대비	29.1	36.9	43.0	39.5	44.1	19.0	83.2	24.0

3. 평 가

초등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급식 발전방안'으로 발표된 정부의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방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표3> 학교급식과 관련한 일반회계예산

구 분	초등학교 중식 지원비	급식시설설비지원
'94년도 일반회계예산	16억2천만원<중식지원6,000명(1,500원/1식,180일)>	200 억원
'95년도 일반회계예산	//	-
'96년도 일반회계예산	19억8천만원<중식지원5,500명(2,000원/1식,180일)>	-

1)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시설설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의 계획은 '95년도에 1,418개교에 대한 급식을 추가로 실시하여 급식수혜대상을 160여만명으로 끌어올리되 소요재원의 절반 정도를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전국 5,900여 초등학교에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일제히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해 후원회비를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였다. 국민학교 1개교당 급식시설 설비비가 도시의 경우 1억5천만원 ~ 2억, 농촌의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을 예상하였는데 '97년까지 정부의 예상지원액 2천억원(연간7백억원)을 뺀 5천여억원이 학교급식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부

모 부담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급식 시설설비비용의 부담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필요비용의 50%정도를 학부모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었고 심한 경우 필요비용의 90%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이 세워진 곳조차 있다.

2)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정책에도 나타났듯이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는 늦어도 97년까지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는 전망이 보인다.

정부는 '98년까지는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 50% 정도를 실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데 따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3) 학교급식 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5조2항에 의하면,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나 법인, 단체들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후원회의 역할은 다분히 재원조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급식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제정에 대한 집행이나 보고, 부식업체의 관리감독, 재료의 선택 등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학교급식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결 론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살피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러나 양적 확충의 문제만 보더라도 '97년까지 완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숫자만 늘어나간다고 해서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이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의 의지가 있는 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보육사업은 공히 아동중심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아직까지 시설중심과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것은 보육의 질 문제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의지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촌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의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며 민간시설의 운영문제와 교사들의 질적인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보하는 가족서비스적 측면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의 경우 '97년까지는 전면적인 실시가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의 투자를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로 확산하는 문제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대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영유아의 보육,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첫째 아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둘째 근본적으로 수혜자부담으로 되어있는 경비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예산에서 그 재원이 조달되어야하며, 셋째 정책집행과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 지역사회 등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령전후의 아동의 보육,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볼 때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아동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책기조의 핵심은 아동에게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총선맞이 기획

15대 총선, 각 당에서 바라보는 “보육”

위양자 / 본회 부회장

제15대 총선시기에 즈음하여 각 당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편집부에서는 입수한 4당의 여성정책 중 보육과 관련한 공약들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본 원고는 3월 18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마련한 [제15대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 여성정책 공청회]에서 본회 위양자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내용이며, 자민련의 정책안이 뒤늦게 도착되어 본 원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1.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총선을 겨냥하여 내놓은 3당의 정책 중 보육관련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현실과 그에 따른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보육시설확충 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2) 보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아동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되어야 한다.
- 3)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
- 4) 방과후 아동지도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보하는 가족 서비스적 측면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 근거한 과제를 각 당에서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정당의 여성정책 중 관련 항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겠다.

2. 각 정당 보육관련 정책 평가

〈표1. 4당 보육관련 정책 비교표〉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확충사업	· '97년까지 총 1조3천억 원을 투자하여 13,678개 소로 확충 ·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의 설치 활성화	· 탁아소를 우체통 거리로 확대	· 2000년까지 보육률 100% · 종교, 사회단체 보육시설 운영의 권장	· 학교 및 공공기관, 종교 단체에 보육시설 확충
지 원	· 공동육아협동조합 지원	·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확대지원	· 가구당 120만원 이하 소득가구로 지원 확대 · 공동육아협동조합제도 육성지원	· 농어촌의 민간보육시설, 각종 보육시설에 지원 확대
직장보육사 업		· 상시 고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설치 의무화 · 직장여성, 탁아비용 일 정책 근로소득에서 공제	· 상시 고용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설치의무화 또는 보육비용 지급의무화	· 상시 고용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확대 · 설치사업장에 세제 혜택
영유아보육법 개 정			· 조례제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 영아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운영 내실화 · 학교내 탁아방 설치 확대	·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을 전국 시도별로 단계적 설치 의무화	·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 · 영아교사 양성기관 설립, 영아보육 활성화	
방과후 아동지도	실 시	실 시	실 시	실 시
급 식	·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 확대 실시	· 2000년대 초까지 중학교 실시, 초등학교 즉각 실시	· 학교급식 확대: 일반회계에서 시설 설비비 보조	

1 신한국당

신한국당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촉진한다.'에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수요를 완전 충족시킨다.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 및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을 확대 실시한다. 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96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확충사업이 목표 달성가능할 지 의문이다. 기존의 민간시설이 휴·폐업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용자제도에만 의존해서 시

설화충이 가능하며, 이런 화충계획으로 보육의 질 개선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국공립에서 회피하고 있는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의 화충은 필요성의 절박함에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를 위한 예산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일수록 예산에 관한 지원계획이 확실해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대략의 계획이라도 있다면 듣고 싶다.

신한국당의 정책은 국민연금 기금 활용에 의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양적 화충을 하려는 것을 정책의 기초를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꼭 국민연금용자제도를 보완해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정도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는 담보만 있으며 무자격자들이 시설을 만들고 속성으로 연장 연수를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즉 기존의 민간시설들이 이 용자제도를 활용하여 휴·폐업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영리화를 억제하고 준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 국공립과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는지, 만약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민간시설 급여 개선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② 새정치국민회의

국민회의의 '모성보호 및 아동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여성관련복지 부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정책을 강화한다.'에 관해 살펴보면,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을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전제아래 정책에 있어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임의적인 실천을 배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문제해결의 측면보다는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점과 아동이 평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에서 그렇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책 가운데 다른 당과 달리 탁아소 화충 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는 정책에 대하여는 일단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모든 아동에 대한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보육하는 민간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높은 요구가 있다. '95년까지는 교재교구비 항목으로 1회 지급되던 것을 항목을 확대한다면 어떤 항목이 가장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원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③ 민주당

민주당은 여성복지 부문 가운데-탁아,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2000년까지 보육을 100% 제고, 탁아문제 해결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며 육아를 국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현 영유아보육법의 근간을 이루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 재정 뒷받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국가의 육아에 대한 의무규정이 빠져 있음을 지적한 점을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육아 협동조합제도, 종교 사회단체시설 이용권장과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분과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관해 언급이 없어 보육현실에 대한 구체적이 개선,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100% 제고, 탁아문제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3. 총평

각 당 모두 보육시설의 양적 화충의 필요성과 영아, 장애아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이다.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에 대해서도 각 당이 모두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제목만 설정하고 구체적 안이 없는 당도 있다. 이제 시작의 시점에 있는 문제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의견수렴 과정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가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보육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여성과 아동의 입장에서 충실히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이 있다.

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여성, 그 아동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정책을 준비한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통선맞이 기획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각 정당에 여연의 입장을 제시하여 여성공약의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여성정책의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연 회원단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이 내용을 근거로 공약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2. 국가는 여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부'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국(여성과)을 신설해야 한다.
3. 정부의 복지예산을 향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GDP 대비 5%로 확대해야 한다.
4.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확해야 한다.
6. 정치, 고용, 교육·훈련, 언론, 문화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7. 매매음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8.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여성농민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9.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여 국민연금 및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10. 질 좋은 탁아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199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61%가 남편으로부터의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30.2%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한국여성의전화가 받은 1만 5천3백90건의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문제 상담이 3천 2백 14건(21.1%)이었으며 학대 피해 정도를 보면 상담한 여성의 50%가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중 52%가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신문에 보도된 가정폭력 사건만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들은 오랜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분노 끝에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나 가해자가 폭력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들이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만연된 폭력문화와 가부장적 사고로 인하여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이를 사회에서 묵인 방조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먼저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가정폭력 확대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소와 상담소 설치에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상담,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상담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지급명령, 시설 위탁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치료와 교정, 교화과정을 밟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부'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국(과)을 신설해야 한다.

정무장관(제2)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 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위한 법제정권과 예산 및 인력 면에서의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기능강화와 관련한 문제가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정무장관(제 2실)의 96년 예산은 80억 3천 7백만원이고(일반회계예산 대비 58조 31억원 중 0.0014%) 이 중에서 한국여성개발원 출연금이 52억 1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정무장관(제 2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과 28억 2천6백 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분야별 예산 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16억 9천 4백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중에서 여성정책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주무부처가 빠져있어 얼마를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제 36조에 사무처리 국무위원의 지정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에서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하였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여성부를 신설해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 제도 및 행정 조치, 관행 등에 의해 여성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연구와 여성관련 통계 제공, 입법제안권, 여정정책 관련 발안권, 여성정책 예산 기획 및 집행권, 적극적 조치의 이행 감시, 여성관련법 이행감시 등의 기능을 갖춘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부는 여성이 일정 수준의 평등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충분한 권한과 인력, 재원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관련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여성관련 장관회의(대통령이 주관)를 설치해서 부처간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남녀평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 내에 부녀소년과가 근로여성 문제를 담당하듯이 농림수산부 내에 여성농민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근로자, 여성농민 등 부문별 기층여성을 전담하는 담당부서 설치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국 또는 여성과를 설치해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복지예산을 향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GDP 대비 5%로 확대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복지예산

의 획기적인 증대가 일차적인 관건이다. 정부도 경제성장의 성과와 사회개발정상회담(1995) 등 국제적인 흐름에 힘입어 적극적인 복지실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복지예산은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러운 실정이다.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발표한(2월 15일) '국민복지 기본구상'은 현재 32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2000년 초까지 15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10조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를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자칫 장미빛 전망에 머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GDP(국내총생산)대비 1%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GDP 대비 8%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GDP 대비 5%의 복지예산 확보는 복지국가를 향한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5%는 약 11조 8천억원(94년 GDP는 235조 9,310억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매년 복지예산을 40% 이상 증액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예산 확충방안은 세금을 신설하기 전에 왜곡된 조세, 재정구조의 개혁을 통해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그동안 누수되었던 세 금에 대한 징세 확대와 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조세감면 범위의 축소 및 불로소득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지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경제개발비나 국방비 등 비대화된 세출을 축소하고 복지비를 상대적으로 확대 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충된 사회복지예산은 우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층인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여성복지 예산은 복지부 예산(95년 일반회계 1조 8,826억원) 중 5.3%(95년 998억원)에 불과해 그 규모가 지나치게 빈약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4.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가내하청, 시간제 근로, 파견제근로 등 고용불안정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여성노동자가 일차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적극 대처하고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독자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평·비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사회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동일 적용하고 명목에 불과한 변칙적인 시간제노동자

고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3개월 근속시 정규직화 원칙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규제해야 한다.

- 가내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고 장시간노동의 방지, 공임의 연제와 체불방지를 위한 가내노동수첩의 보급 등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능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급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여성전용직업훈련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고기능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고 이 중 여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험료 각출에 있어서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 공공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지급되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용주만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휴직급여(통상임금의 70%)의 수준에 준하는 급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및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

5.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해야 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이미 여성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대를 이어나가는 사회적 인 일이다. ILO의 103호 모성보호협약에는 출산휴가 기간 중의 소득급부를 받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고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의 공업적·상업적 기업과 각 부문에서 비공업적·농업적 업무로까지 확대하였고 출산휴가 기간을 적어도 12주간으로 연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중의 소득급부는 강제적 사회보험이나 공공기금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여성계와 노동계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체계를 요구해 왔다.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장체계에서 분담함으로써 기업의 여성고용기피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도 이러한 요구와 국제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휴가기간 급여를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고 세부사항은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을 보면 출산휴가급여를 공공부문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농업·공업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의 여성에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해 모성보호기금의 조성 또는 의료보험제정을 통합하여 의료보험 급여에서 출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정치, 고용, 교육·훈련, 언론, 문화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총생산이 세계 11위인 한국이 인간개발·남녀평등 면에서 30위권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책참여도를 측정하는 여성권한 척도의 경우에는 한국이 90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 지방의원 비율은 2.2%, 여성장관은 1명, 여성공무원중 5급 이상은 1.9%, 여성대사 1명, 정부내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 여성법조인 2.1%, 여성언론인 14.1%, 대학교수 13.9%이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9%이고, 교육 수준은 전문대 이상 고등학교 취학율 면에서 한국 여성은 34.3%로 교육수준이나 경제발전 기여도 등에 비추어 너무나 세력회지수가 이처럼 낮은 현상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 사회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정책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구조적인 장벽 때문이므로 빠른 시일안에 개선하여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1995년 제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에는 2,000년까지 각 분야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50%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제 6조(잠정적 우대조치)와 제 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참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각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에서 여성에게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정당내 각 급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이 최소 30% 이상,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할당해야 한다. 그리고 장차관 인사에서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할당해야 한다.

-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5.7급 공무원의 목표할당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일조건에서 여성이 우선 승진 배치되도록 하고, 국공립대학 임용시 동일조건 여성이 우선 채용되도록 해야 한다.

- 여성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한다.

- 여성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여성농민 할당제를 30%

이상 도입해야 한다.

7. 매매음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매매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재를 성을 파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퇴폐향락업소를 규제하고 문제의 접근방식을 성을 파는 여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에 둘 것에 대한 사후적 규제에 두지 않고 '매매음 행위'에 대하여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인 예방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유흥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되어 쌍벌규정이 강화되었지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따라서 매매음 행위를 예방 및 방지하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매음을 조장하는 퇴폐향락산업체(기생관광, 룸싸롱, 구인광고 및 전화를 통한 매매음 유인행위)를 근절해야 하고, 매매음 행위의 금지, 매매음 남성의 선도 교육 참가 의무화, 매매음의 조장 및 중간착취행위 등의 금지, 매매춘 밀집지역에 전문상담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적이고 현실성있는 매춘여성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매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성폭력규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실효성 없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즉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법정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다. 친고죄를 존속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위하여 존치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강간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오히려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근친자 강간에 있어 근친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하의 가해자나 인척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친족의 범위에 계부가 포함되지 않아 외붓딸에 대한 성폭행이 무죄로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8. 여성농민을 농업전문경영 인력으로 육성하고 여성농민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 오늘날 농촌여성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농업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의 생활기반이 되는 건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반 복지수준은 극도로 열악하여 지속적인 농촌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중한 노동과 농약사용, 비닐하우스내의 작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각종 중세의 농부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전산후에도 농업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농촌의 여건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키

고 있다. 특히 여성농민은 산전산후 60일 유급휴가, 육아휴직제 등 모성보호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건강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속에서 여성농민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생산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의 모성보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의무화하고, 모성보호수당 60일 확보 등 복지에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 여성농민은 농업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농민을 농업전문경영인력으로 육성해야 농업을 살릴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소농 방식에서 협업화와 규모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여성들이 농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농조합 법인, 농업생산기술조합 설립시 여성참여의 의무화 및 여성영농 전문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농민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설치 및 농촌탁아소 운영비 지원 등 여성농민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농림수산부, 지방자치단체내에 여성농민 담당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농업정책과 여성정책에는 여성농민정책이 부재하다.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9.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여 국민연금, 소득세 공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육아주부는 하루 평균 11시간 20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궤립조사) 육아 및 아이 돌보기 시간이 4.7시간, 식사준비가 3.9시간, 빨래와 청소가 2시간 등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24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정경제생활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에 의한 피부양자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 조세정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먼저 연금제도를 보면 주부는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연금제도의 혜택이 제한되고 있다. 즉, 주부가 연금을 들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나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높은 각출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부는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당연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가급연금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가급연금액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다. '95년도 배우자의 급여수준은 연 90,030원(월 7,5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가정경제생활에서 주부의 기여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여성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부는 남편에 의한 생계

유지자로서 소액의 가급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나마도 맞벌이 부부거나 남편이 생계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이혼시에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급연금액 산정시 배우자의 급여수준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해 현실화해야 하고, 아내의 협력으로 각출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얻어진 가급연금이 이혼과 함께 취소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에도 가급연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서의 자격기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즉, 남편이 사망하여 처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가입자인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수급권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해야만 한다. 이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된다.

이같은 성차별적인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를 포함한 가입자 개개인에게 자기 명의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이혼 후에도 자기 명의의 노령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세정책을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여성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면세범위가 확대되었다. 배우자간 상속 공제액은 10억으로 하든지, 1억 + (결혼연수×1,200만원)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증여공제액은 5천만원 + (결혼연수×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소득세 공제내역에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제내용에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필요경비로 산정해 공제율에 반영시켜야 한다.

사고발생시 주부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공사부문이나 제조부문의 보통인부 임금(일용노동자 임금이 정부노임단가에서 보통 인부 임금으로 정의 변경)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사고발생시 주부의 일을 대신하여 파출부를 고용할 경우 가정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취업자에게 학력, 경력, 연령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부에게도 사고시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상실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0. 질 좋은 탁아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을 중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현황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불과 4년만에 보육시설의 수가 6,000여개로 양적인 확충을 가져왔고 정부의 예

산 규모도 90년도 191억원에서 96년도 2,37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추계하는 보육대상 아동수는 102만명(절대 필요충)인데 95년 6월말 현재 8,129개 시설에 27만 명이 보육되고 있어서 아직도 시설 확충은 전체 보육 수요의 27%에 불과하다. 향후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워 97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7,590개를 확충해 13,678개소(보육수요의 60%)로 늘릴 예정이다. 보육시설의 확충은 지역내 보육수요를 조사해 국공립시설이 설치되도록 요구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이 없고 설치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무작정 설치에 따라 인근 민간 시설이 폐원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확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비용부담이 수혜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보육적 성격보다는 사보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공립 시설은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반해 민간보육시설은 그 운영 주체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이고 보육아동의 62%를 보육하고 있고 이용아동과 운영내용이 국공립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을 중심에 놓고 동일한 서비스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교사인건비 50% 지원, 보육아동급식비 지원,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야 한다.

-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경감과 성장기 청소년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나아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방과후 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우선 국민학교, 사회복지회관, 지역사회시설 등의 시설을 개방하여 방과후 아동보호시설로 활용하고,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후 아동시설에 보급하고 방과후 아동시설 운영비, 아동지도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총선맞이 기획

바른 선거를 위한 제15대 총선 행동지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4월 11일은 제15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한국 정치의 향후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제15대 총선에 유권자들이 최소한 자기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 선거용 홍보물로 스크랩북을 만듭니다.

"신중하게 후보들을 조목조목 검토해보셨습니까?"

후보들의 개인유인물들을 모아 그들의 경력과 이력, 공약과 주장등을 간단한 스크랩북을 만들어 후보를 비교해 보고 향후 당선된 후보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합니다.

□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세가지씩을 얘기해 봅시다.

'선거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산교육장'

내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정보를 가족들과 교환하며 후보에 대한 선입견, 공약의 현실성 등 의견을 나눕시다.

□ 이미지와 실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훌륭한 정치인(?)'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차례의 선거를 통해 검증되었듯이 만들어진 이미지로 승부하려는 안이한 선거전략에 세기를 박아야 합니다. 유명 탈렌트, 간판 앵커 혹은 진행자, 알려진 법조인, 대학 교수 등 유명세 만큼 '난 인물'인지 여러 각도에서 검증해 보십시오.

2. 선거운동에 공세적으로 대응합니다.

□ 친목, 동향, 동창, 취미, 계, 체육, 종교모임 등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시간을 쪼개 후보자들도 한번 봅시다.

후보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의 주장이나 공약을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따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 언론사, 시민단체에 동시에 고발하십시오.

선심관광, 향응제공, 금품살포, 관권이용 등을 목적 또는 제보가 있을 시 확인후 재빨리 고발하십시오.

□ 독재정권에 빌붙었던 인사들은 최소한 이번에는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 보통사람들은 한껏 주눅들어 지내던 때, 몇선을 한 중량급이니 무슨 무슨 장관을 역임했니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5,6공 당시의 왜곡된 역사 일부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전반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이런 후보 어떻게 봅니까?

□ '정치 공식'에 도전하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철학과 소신이 아름답습니다.

'계파 정치' '줄서기' '이합집산' '나눠먹기'... 험잡판도 아닌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평소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일관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활동해온 후보들을 믿어주십시오. 삼류정치를 일류정치로 정치인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 민주화운동 경력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선은 됩니다. 민주화운동을 벌여왔는가, 아닌가 그 자체가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 출발선 위에서 새시대를 열어가는데 적합한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을

얼마나 충실하게 닦아왔는가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때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겁니다. 온 몸으로 오늘의 시대를 열어온 이들에 대해 조금 더 애정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세가 있습니다.

‘직접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봅시다.’

말을 잘 하는 것은 대중 정치인의 자질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선동가가 바로 좋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 전화홍보를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전화홍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수단이니 만큼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사안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선거 운동에 잘못된 점이 눈에 띄면 사정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십시오.

4. 이런 사람 꼭지 맙시다.

■ 지역, 학교, 문중비례 대표제는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따지는 출신교, 같은 성씨에 사돈의 팔촌 운운하는 혈연 등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 지역개발이 아니라 특정당 표물이가, 지역의 자존심이 아닌 후보의 자존심이 지켜질 뿐입니다.

균형있는 국가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 강제되는 ‘색맹화’를 벗어납시다.

선거때만 되면 갑자기 공안사건이 빈발하고 북한의 남침위기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되는 긴장감에 편승하려는 후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선동적인 구호를 남발하는 후보와 이성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색있는 안경을 벗고 비교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살시다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

감기에 대하여

-아기(어린이) 감기를 중심으로-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차례>

1. 감기에 대한 몸의학의 정의
2. 감기를 대면하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
3. 어린이 감기와 특징과 그 의미
4. 감기가 발생하는 생활상의 원인-식이주 및 정보를 중심으로
5. 감기에 대한 대응과 요법-한몸짓기건강요법을 중심으로
6. 건강한 몸을 위하여-이해와 조심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1. 감기에 대한 몸의학의 정의

몸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감기(感冒, 感冒, Common cold)란 사람의 몸과 우주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의 요구(Need)이며 행로(Direction)인 것이다.

몸이 현재 감기를 앓고 있다는 것, 즉 감기를 앓고 있는 몸의 상태는 몸이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말해주는 몸의 징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이 현재 감기를 앓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몸 스스로가 우주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기 노력이며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라야 감기도 앓는다는 사실이다.

감기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감기는 질병이고, 질병은 나쁜 것, 혹은 빨리 피치해버려야 할 것, 뿐만 아니라 감기는 약한 사람이 걸린다고만 여겨져 왔던 지금까지의 의학상

식과는 견해가 다른 예기로 들릴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렇다면 몸의학은 감기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몸의학의 견해와 기존의 의학상식과의 비교는 기회 닿는대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2. 감기를 대면하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

사람의 몸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40억년 우주진화의 결정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정체인 몸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알 수 없음은 우주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단순하고 적나라하게, 우주를 우주 그대로,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면, 몸은 곧 우주이고, 사람의 몸과 우주의 몸은 같은 한몸으로서 동일한 요구를 하고, 동일한 행로를 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일체의 구성요소는 우주 그 자체의 구성요소와 일치한다. 몸의 구성체계와 그 기능도 우주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우주의 몸은 불가분리의 관계자(關係者)로서 같은 한몸(一體=Hanmom)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36도5 부라는 사람의 체온,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물(70%)이 차지하는 비율, 체액의 농도(0.9%), 그리고 우리 몸의 하수구격인 대장에 생존하고 있는 균들(100종류의 균이 약 100조가량)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살갗 1평방Cm에 대략 500만마리의 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일, 일하고 쉬는 일, 소화하고 배설하는 일 등등 모든 기능의 내용과 작용이 우주의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사람의 몸은 곧 우주 그 자체이며, 우주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몸은 곧 우주이다.

이렇게 몸의 몇가지 내용만 보아도 지구는 물론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그 기능이 몸의 방식대로 우리의 몸 안에 집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균이란 모든 균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사람의 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균들(=생명체)과 가장 바람직한 균형(Balance)과 조화(Harmony)를 이루면서 모두가 우주의 요구와 행로대로 공생, 공존, 공영하는 생명체의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활공동체인 사람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고, 일하고, 쉬는 일체의 생활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몸의 요구와 몸의 행로, 즉 우주의 요구와 행로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하루의 생활, 매 순간 순간마다의 생활(삶의 방식)이야말로 사람의 몸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피어나게 하고, 싱

싱하게 살아있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시들고 얼어붙으며, 결국에는 죽어가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느냐 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감기관 단순한 병이거나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마땅히 되쳐야 하는 나쁜 세균의 뭉치이거나, 약균의 작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감기관 인간의 생활이 몸의 요구와 행로, 다시 말해서 우주의 요구와 행로대로 생활하지 못했을 때 반사하는 몸의 현재적 상태이며, 동시에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몸 스스로의 요구이며 실천인 것이다. 감기는 지나친 인간-자기 중심적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몸 안에서 공생하는 우주적 생활공동체인 모든 생명체들의 균형이 깨진데서 발생하는 이상증후군인 것이다.

결국 감기관 진정한 몸의 요구에 반하는 먹거리, 입을 거리, 주거공간, 과로, 운동부족, 육체노동의결여, 잘못된 사고방식, 스트레스, 피곤의 중첩, 무질서한 생활태도와 습관, 과욕, 과식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몸의 균형의 깨어짐이며, 몸안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의 쌓임이며, 결과적으로 몸의 자치능력과 그 기능의 떨어짐에서 발생하는 온갖 형태의 증상으로 나타난 몸의 현상(現狀)인 것이다. 이러한 몸의 현상태가 구체적으로는 코로 나타나게 되는데 코 기능이 무력하게 되고, 밖으로 부터 받은 공기를 정화해내지 못하게 되며, 공기가 직접 폐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에 지장이 생기고, 폐기능이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몸의 상태를 댄 처음 드러내는 현상이 다름 아닌 감기라는 증상-몸의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감기를 앓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첫째로 몸의 기능적인 면에서 우주의 기(氣)와 사람의 몸의 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몸의 구체적인 신호(Sign)이다. 이러한 우주의 기와 사람의 몸의 기의 부조화와 불균형의 상태는 감기라는 총체적인 몸의 반응에서 시작하여 코막힘, 축농증, 비염, 비후성비염, 인후염, 편도선이상, 편도선염, 편도선 비대, 기관지염, 기관지확대, 기관지천식, 기관지협소, 폐병, 폐렴, 진폐증, 폐확장, 폐수종, 대장무력, 대장출혈, 맹장염, 변비, 치질, 고혈압, 저혈압, 피부염, 각종 피부질환, 유증, 유방암, 알레르기 현상 등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감기에 걸리는 전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온몸에 한기를 느끼게 되고, 어깨와 뒷목이 뻣근하고 시리며, 뼈마디가 시큰거리거나 쭈시기도 하고, 코가 쉼쉼거리거나, 열이 나고,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콧물이 나며, 기침이 나오고, 가래나 담이 나오며, 두통이나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 등 사람에 따라서 이루 헤아

릴 수 없을 정도로 천태만상의 증상을 나타내보인다.

둘째로 몸의 역할이란 면에서는 코에서는 직접 들어 온 공기를 받아서 공기를 정화하고, 공기를 따스하게 하며, 공기중에 묻어있는 나쁜 독소나 더러운 먼지를 체로 치듯이 치어낸다. 인후에서는 체액을 내어 다시 독성과 먼지를 다시 정화시킨다. 그래서 감기를 앓고 있다는 것은 열을 내고, 콧물, 기침, 재채기, 설사 등을 발하여 일반적으로는 몸의 현재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몸안의 독소를 대청소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전과정에서 우리 몸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바로 감기라는 현상인 것이다. 이제 몸은 콧물, 기침, 가래 등을 내며 오장육부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또한 몸은 열을 발하며 온몸의 피돌기를 원활하게 하여 세포 하나 하나를 깨끗하게 한다.

몸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약해진 면역기능을 높여 여러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도 모자라면 설사를 시켜서 뱃통까지를 비워내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몸의 자치능력인 것이다. 감기란 다시 말하면 몸의 자치능력의 발로의 한 요소인 것이다.

- 가래나 담이란 바로 이렇게 체액을 내어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과 먼지가 물은 끈끈하게 된 체액이라고 보면 된다.
- 콧물은 코속으로 들어 온 공기중에 묻은 나쁜 독소와 먼지를 씻어내려는 코의 작용이며, 코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내기 위해서 분비한 체액인 셈이다.
- 기침과 재채기는 독성과 먼지를 정화시키는 기관지나 인후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겨난 현상으로서, 독성과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함을 순간 순간 해결하기 위한 기관지와 인후의 작용인 것이다. 폐렴으로 인해서 기관지나 인후는 체액이 말라 건조해진다. 공기의 들어오고 나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이 기침과 재채기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감기는 아주 환영할 만하고,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리고 감기를 자주 앓으면 앓을수록 좋겠군요 라고. 그러나 감기란 어디까지나 몸의 입장에서는 몸의 불균형에 대한 경고이며, 엄청난 몸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이며, 비상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몸이 본연한 몸(모든 생명체들의 생활공동체인 우주)의 요구와 행로대로 생활하게 된다면 구태여 비상수단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몸은 스스로 자기의 자치능력(自治能力)을 발휘하여 몸안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스스로 생리기능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몸안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생활 리듬대로 공생과 공존, 그리고

공영의 생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기라는 비상수단이 필요없는 건강상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몸의학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병을 잘 치료하고, 고쳐낼 것인가에 대하여 게을리 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거기에만 무게 중심을 두지는 않는다. 오히려 몸의학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우주인 몸의 요구와 행로대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몸 스스로가 우주 그 자체로서 온전하게 피어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온전한 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를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의학은 사람이 감기를 앓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요법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몸의학은 어떻게 하면 감기(감기를 잘 달래면서)를 잘 앓으면서, 우주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몸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몸 스스로가 온전한 몸의 요구와 행로대로 살아가 수 있겠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입장에 서 있는 바이다.

감기를 잘 앓게 되면 감기를 앓기 이전보다 몸은 스스로 자기의 요구와 행로대로 살아가 수 있게 된다. 즉 몸은 더욱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은 소극적으로 보아 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면 몸이 스스로 싱싱하게 살아 있는 몸의 상태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음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 즉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먹거리, 쉬쉬는 입을 거리, 생명력 있는 살림공간, 창조적 정보에 힘입고 살아가겠다는 사고방식의 전환과 생활의 우주화가 선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교육연구회는 한물것기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건강체조, 민간자연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자연산 식이요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 전화:(02)882-4705, 팩스:(02)878-4624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조인숙 /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취업모가 점점 늘어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편모, 편부의 증가로 가정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유아기에는 부모가 직장을 나가는 경우 여러 경로의 대리 양육자를 통해 자녀 양육을 의존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엄마는 아이 혼자서 지내고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많은 위험과 유혹이 안밖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에는 아이들로서는 버거운 일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을 통해 보면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Erickson은 이 시기를 자아성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거리와 오락실을 헤메이고 있으므로 올바른 인성과 습관, 가치관을 배우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 정착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방과후 아동 지도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인 종합사회복지과중 36개소와 30여 개소 되는 공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요구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시설이며, 재정난으로 인해 지역 아동들의 교육 요구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이번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는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공청회는 정무장관제2실 주최로 이루어졌는데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본 공청회를 주최한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여성개발원의 수석 연구원인 김제인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였고 박병하(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이재학(교육부 의무교육정책관실 장학관), 주은희(인간교육실험 학

부모연대 상임위원), 조연순(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박근성(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인순(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등 저명한 관련자들의 토의로 이루어졌다.

김제인 박사의 주제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방과후 지도의 목적과 내용, 법적 근거, 방과후 지도의 현황과 방과후 지도사의 역할 등을 밝혔다.

방과후 지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취업모 자녀를 포함하여,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 ②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 ③ 학업성취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밖에 아동의 건전한 놀이지도와 여가선용, 예절교육, 기본생활습관 형성, 또래 집단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등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①생활지도 ②진로지도 ③숙제지도 ④학업계획 수립 지원등 학업성취를 위한 지도 ⑤특별활동지도 ⑥놀이지도 ⑦자율학습활동 ⑧독서지도 ⑨성교육 등을 가르치게 된다.

아동의 방과후 지도는 아동의 독특한 발달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아동지도사가 있어야 한다. 영유아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초등아동은 초등학교 교사가(아동복지법, 교육법) 청소년은 중등학교 교사가(교육법)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기본법)가 맞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을 지도할 방과후 아동 지도사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현황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여성개발원에서는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안산 초등학교와 상암 초등학교 두 곳을 선정하여 방과후 지도 교실을 마련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

발표자는 이 두 곳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아동 교실에 대한 의견은 총 학부모의 86.2%가 '방과후 지도 교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간 소득층의 학부모보다 저소득 밀집지역 학부모가 더 많은 수가 요구하고 있었다.
2. 전체 학부모의 89%가 방과후 아동교실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방과후와 마찬가지로 방학중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3. 방과후 아동지도비는 해당 부모가 내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43.2%) 그밖에 국가(27.3%), 지방 자치단체(15.3%)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부담시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를 원하고 있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이는 이 금액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비용이다.

세계, 방과후 아동 지도 현황과 아동지도사 교육 현황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청과 강원도청의 부녀복지과에서 운영 예정이며 서울의 36개소 사회복지관에서 실시중이다. 이밖에 교회나 사설로 운영되는 공부방과 최근 여러 단체에서 아동지도사 교육을 수료하고 설치한 아동 지도시설이 몇곳이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안산, 상암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원종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세우고, 이곳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설치나 아동지도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직 미비하다. 이러한 가운데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문제이며 시설 개방, 지도프로그램 개발, 재정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표자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관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담 부서가 결정되어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하되, 실제 아동지도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가 관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의 광범위한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으나 공통된 우려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의 문제이다. 즉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과후에 특기교육을 받으러 여러개의 학원을 다니는데 방과후아동 지도교실에서는 이러한 특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학부모들은 학원은 학원대로 보내면서 아동지도 교실을 이용한다면 이중 부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의 60%가 이러한 사교육비를 절감해 보겠다는 취지하에 방과후에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아동지도사의 필요성과 자격제도가 있어야 함에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새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발령이 나지않아 교사의 길을 포기한 자들을 연수교육을 통해 아동지도사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현재 보사부에서는 보육교사 이수과목에 '방과후 아동지도'과목을 넣어 보육교사들을 활용하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아동지도사가 배출되는 경로도 아직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무려 3시간 반동안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방청객들도 예상외로 많아 주관하는 측에서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충분히 증명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숙고하여 아동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청회를 방청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 숙제하고 있으라고 이르고 온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녀석이 눈에 어른거렸다. 엄마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항상 혼자 있어야 하고, 혼자 놀고, 혼자 공부해야 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인 까닭에 방과후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아동센터, 방과후 아동 정보센터 등이 설치되어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항상 양적인 것에 치중해왔다. 우선 양적으로 확대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질을 고려해 왔다.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만은 치밀한 계획과 검토, 모의실험 등을 거쳐 착오 없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그림책 소개

꿈의 동물원 1. 2. 3.

글, 그림 이강화 / 길벗어린이 / 원

제1권 내 딸기 아이스크림 누가 먹지?

제2권 어, 내 표범팬티 어디 갔지?

제3권 누가 곰순이 잠 좀 재워줘

이 책들은 시리즈물로, 화가인 이강화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책입니다.

우선 단단하고 두꺼운 종으로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의 손에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림은 유화의 특징을 살려 아이의 얼굴을 살아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아이의 얼굴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얼굴표정도 눈동자까지 화가 말대로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가 재미있고, 이야기 내용도 대화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내 표범팬티 어디 있어?'하고 물으면, '아기사자가 아빠 흉내낸다고 쓰고 갔대.'하고 대답합니다.

[꿈의 동물원 1.2.3.] 모두 여러가지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가 어찌 어찌 했대.'하고 말하면 '그러다', '그래서', '그래도'의 접속어를 쓰면서 되묻는 반복구성입니다. 예로 [냉장고 속 딸기 아이스크림 누가 먹지?]를 보면, '남극에 사는 아기 펭귄이 먹으려고 해' '그래서 먹었어?'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행동의 반복구성과 대화식으로 이어지는 글 형식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빨리 넘겨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한 그림책일수록 어린 유아들이 빨리 들어가는 힘은 강합니다.

이 그림책들은 그림책 작가가 꿈의 동물원이라고 이름 붙였듯이 여러 동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아들도 흥미를 느끼기에 충분하고 또 큰 아이들이라면 찰막한 말과 그림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내 표범팬티 어디 갔어?'라는 그림책의 마지막



장은 표범이 팬티를 물고 가는데 엉덩이쪽의 표범 무늬가 사라져 버린 유머스러운 그림입니다.

'누가 곰순이 잠 좀 재워줘'하는 그림책에서는 호랑이를 등장시켜서 '호랑이한테 물어가라고 할꺼야.'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다소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호랑이의 눈동자를 유심히 보게 되면 무섭다기보단 입가에 웃음을 짓게 됩니다.

'내 딸기 아이스크림 누가 먹지?'에서는 아기 펭귄이 딸기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 눈길의 움직임이 움직이게 됩니다.

동물원에 갈 계획을 세우신다면 아이들과 이 책을 먼저 읽고 나가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그림책이 나온 것이 참 반갑습니다. 꼭 어린이집에 비치했으면 합니다. 영아들도 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소개 : 이현경(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새터어린이집)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 ** 소개된 그림책을 4월 15일까지 주문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 <좋은 그림책 소개>에서 소개된 책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난 후 그 감상이나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글을 보내주시시오.
- 다소 다른 평가도 있을 터이고, 또 이 글에 쓰여있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으로 그림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림책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이니까요. 좋은 글을 기대합니다.
- 평가서를 보내주시면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에서 좋은 책 한권을 보내드립니다.

바깥놀이

밖으로 나가 놀자구요

전경숙 / 교사소모임 '밖으로 나가 놀자'
울창줄창어린이집

따뜻한 봄날 가장 신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교사들이다. 겨울 내내 실내에서만 지내느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짜증내고 힘들어 했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쉬운 봄이 온 것이다.

[밖으로 나가 놀자] 모임에서는 따뜻한 봄날, 언덕에서 진달래까지 그리고 연록색으로 물든 나뭇잎을 찾아 나가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생각하며 이 계절에 맞는 여러가지 활동을 소개한다.

<잔디(풀) 밟기 놀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잔디가 있는 공원이나 왕릉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준비해간 훌라호프, 공놀이를 하지만 잔디밭(풀밭)에 들어간 아이들은 너도 나도 신발을 벗고 맨 발로 풀을 밟는다.

관리인 아저씨에게 들리면 혼날 일이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하라 싶어 관리인 아저씨가 나타날 때까지 발바닥을 통해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풀과 흙이 지천에 널려 있는 세상이 올라, 시골갈던 고색동도 점점 포장도로가 늘어만 가는데...



<물놀이, 흙놀이>

아이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시멘트바닥 조그만 틈새에라도 흙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흙장난을 한다. 말끔하게 차려 입은 나들이옷에 아이가 흙장난을 하면 어른들은 여지없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흙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본성을 말릴 수는 없다. 만지작거리기, 두꺼비집 만들기, 뿌려보기 등 여러가지를 하면서 즐겨워한다.



물 또한 그렇다. 물이 있는 곳이면 아이들은 달려가 기어코 하고야 만다. 약간 고인 물에서도 발로 침병해봐야 속이 시원한 것이 아이들 속성이다. 물받아 뿌려보기, 쪽지를 손가락으로 막아 분수처럼 만들기, 물을 틀어놓고 흘러가는 모양 관찰하기 등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재미를 찾아간다.

아이들이 옷을 버릴 것을 생각해서 여벌 옷을 준비하고 옷을 버리도록 재미있게 놀게 둔다면 정말 훌륭한 교사이겠지만 항상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책감을 느끼곤 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놀았는데 말이다.



그밖에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우리집에 왜 왔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림자 밟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얼음땀, 민들레 흙씨 붙여보기, 꽃잎 따서 관찰하기, 토끼풀 따서 시계 목걸이 만지 만들어 치장하기, 비누방울, 훌라후프, 공놀이 등이 있다.

밖은 어쩌든 접할 수 있는 자연도 있고, 넓은 공간이 있기에 날씨 따뜻해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봄이 어떨지...

새 노래 배오기

종 달 새

(자신대로) 빈칸을 적으

1) 종 달 아 종 달 아 너 어디 갔었니

2) 산에 산에 갔었니 위험한 곳이었니

3) 친구 보고 싶어 산에 갔었니

4) 뭇 친구 나 만났니 맞잖아 해 주렴

5) 그 온 친구 미운 친구 모두 만나서

6) 비비 뽕뽕 비비 뽕뽕 배비 뽕뽕 뽕뽕 뽕뽕 뽕뽕

이 노래는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노랫말과 음이 어렵지 않아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좋다. 이 노래에 익숙해지면 '종달이' 대신 아이들 이름을 넣어 그 아이가 노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면 아주 재미있다.

맨 끝의 '비비뽕뽕' 부분은 조용히 시작했다 점점 커져 "뽕"에서 힘을 주어 짧게 맺어 주는 것이 좋다.

제공 : 서은희(어깨동무어린이집)



한국보육정보 연구소 주최

어린이집 · 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예비원장들에게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 놀이방 개원을 도와주고
보육사업의 바른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어린이집 · 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 일시 : 1998년 4월 18일(목)
오전반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오후반 :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 (학도참조)
- 대상 : 5인 ~ 39인 아동을 돌볼 보육시설 운영 예정자
- 인원 : 오전 · 오후반 각 40명 선착순
- 참가비 : 25,000원 (교재대 포함)
- 신청 : •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이름, 주소, 경력 등)
• 참가비 온라인 입금 • 입금 후 접수 확인
- 내용 : • 보육사업 개론
• 설치 인가신청/신고서 내기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과 지침
• 설치계획 세우기 : 지역선정, 예산 등
•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와 운영방침 세우기
• 일과 구성과 분반, 교사채용
• 필요한 비품 저렴하게 구입하기 등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정은

우체국 010231-0047916-12
한일은행 170-160275-12-001
농협 360-02-026990
서울은행 29504-2040202
조흥은행 371-06-158968
상업은행 134-08-027207



KDI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서울 중구 옥성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7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O(하이텔) ZPBABY(천리안)

새날을 여는 사람들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은 입지 않았지요

- '하나·둘·셋 유아원'을 찾아서 -

황미혜 / 편집부

3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한시간 반 정도를 전철과 마을버스를 번갈아 타고서야 오늘 취재하기로 한 곳에 도달했다.

'화재로 잃어버린 하나·둘·셋 유아원의 놀잇감 마련을 위한 바자회'라는 현수막이 보이고, 일찌감치 놀이터의 온갖 놀이기구를 점령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과는 대별되게 몇명의 젊은이들이 조용히 이런 저런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 만나기로 했던 사람과는 일찍 보는 게 좋겠다고 서로 얘기가 되어 서둘렀는데 막상 나타난 주인공은 좀처럼 얘기할 시간을 내주지 않고 이것 저것 물건 놓을 자리를 잡고 손님을 부르고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을 쫓기느라 정신이 없다. 바자회처럼 보이기 위해 물건들을 쌓아두고 옮기는 것을 조금 돕다가 간신히 찻을 내어 그 주인공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얼마전에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둘·셋 유아원의 태재원씨.

화재가 났던 1월 27일 토요일, 어느때와 다를없이 3시 30분경 아이들의 낮잠을 재우고 나오는데 어머니 한 분이 유아원이 있는 대동시장에 불이 났다고 알려주었다. 다행히 어머니 두분과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의 도움으로 낮잠을 자던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아랫집의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후 거의 재가 된 살림살이는 바닥과 함께 아래층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

얼마간은 근처에 있는 어린이사랑방과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의 친척대(여관을 하고 있어서 1층 창고를 잠깐 빌렸다고 한다)에서 아이들을 봐야 했는데 좁은 공간과 달리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놀잇감이 없어서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잠결에 당한 일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



유아원의 교사들. 가운데가 태재원씨고 뒤의 남자는 자원활동가다.

시장 내의 20여개의 노점을 태우고, 유아원이 있는 건물과 그 옆집을 전소시킨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계속 조사중에 있다. 법적으로 불이 난지 15일 이내에 경찰에서 화재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간다. 처음에는 누전이거나 창고에다 누가 담배꽂초를 던져서 불이 난거라고 여겼었는데, 화재장소 옆에 있는 정육점이 전기가 나가서 정육점의 고기가 다 상한다고 이틀만에 전기공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누전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인데다 경찰에선 화재원인을 방화로 돌리면서 보상문제에서도 어려움이 크다. 어느 시의원의 말을 빌면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방화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기름자국이 사실은 등급이 가장 낮은 경유여서 그렇게 늦게 타오르는 기름으로 방화를 저지를 리가 없다고 한다. 방화범 찾기도 쉽지 않고.

게다가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과 건물의 주인, 세입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장 사장은 보상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법정 소송도 준비하고 있지만 보상액을 떠나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화재로 하나·둘·셋 유아원의 경우 3,000만원 정도의 물품 피해액과 함께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잃었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줄고 신입아동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엄마들도 조금씩 흔들리는 거 같아요. 놀이방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들 놀이방이 거기밖에 없느냐고 다른데로 옮기라고 해서 그새 한 여섯명 정도가 나갔어요. 한 동네에 살면서 다시 안 볼 사람들도 아닌데 말도 안 하고 옮겨서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다행히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놀이방을 하다가 정리하고 다 처분했는데 이제 왜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다. 놀이방을 하려다 안 한다 뭐 이래서 색종이 같은 걸 보내 주거나, 텔레비전, 냉장고를 깨끗하게 닦아서 보내주고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이들의 얼굴은 요새 들어 마냥 기쁘다.

마침 아는 성당 신부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전국에 배포되는 천주교 주보에 소개하고

난 후 서울대교구로 유아원에 대한 후원금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또 예전부터 유아원을 후원해주시던 변호사 한분은 외국출장을 가기 전날 집으로 불러더니 집에서 사용중인 코드가 꽂혀있는 전자레인지로 바로 뽑아 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자신은 사무실에도 있다며 새로 구입한 586컴퓨터도 주었다니...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만 살고 있지는 않아서인지 쓰레기통같은 것도 필요하다니까 쓰레기통을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물건만 보낸 이들도 간혹 있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서로 자신의 일인양 하나 둘씩 보태주고 나눠주기에 마을은 여유를 되찾고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던다.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죠. 아무리 여러개 있는 물건이라 해도 선뜻 내놓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다 그마다의 사정을 달며 그냥 품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고가품인 전자제품들을 선뜻 주시는 분들을 보면 한없이 고마움을 느끼곤 해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힘들게 바자회를 벌인 것일까?

"당장은 물건보다는 공간을 마련하는게 중요하고, 우리가 넋 놓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은 여기저기에 전화하고 문의하러 다니느라 정신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바자회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여러곳에서 후원해주신 물품들 중에 같은 것이 대량 있는 물건들도 있고 해서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쓸 수 없는 물건들을 팔고 나면 지금의 좁은 공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아이들도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아서요."

지금 하나·둘·셋 유아원은 1억 3천6백만원을 국민연금 용자로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집을 알아본 건 아니지만 50평 정도 되는 원하는 공간이 그리 싼 값에 나와있는 것도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다.

바자회 현장에 근 4시간 가량을 서서 지켜봤지만 물건은 별로 줄지 않았다.

동네 할머니, 아줌마들이 천원짜리 현오투더기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눈썰미있게 골라 사가곤 했다. 그중에 어떤 할머니는 9벌을 사가셨는데, 당신 것과 손주들 허드렛 옷으로 입히신다며 기어히 1,000원을 깎아 8,000원을 내고 가셨다. 어찌 구니 없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물건을 파는 본인인 태재원씨는 그래도 8,000원을 벌었다며 마냥 흐뭇하다.

봄햇살이 내리쬐지만 실상 바람은 게



속 붙어서 몸이 으실으실 추워서 더는 놀이터에서 유아원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돌아가는 길에 불이 났던 현장, 예전의 하나·둘·셋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건너편에서 흥겨운 풍물가락이 들린다. 하얀 농민복에 색색의 띠를 두른 풍물패들이 유아원의 바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들고 놀이터로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동네 겨레사랑주민회에서 풍물을 쳐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사들 오는가 보다.

화재현장은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금새 찾을 수 있었다.

거뭇게 그을린 건물. 그리고 험하게 드러난 바닥. 예전의 좁게만 보이던 복적대던 시장이 이제는 험한 광장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무언가 형체가 남아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권물의벽과 기둥만 남아있을 뿐 바닥도 꺼져버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저 입구와 계단, 그리고 화재건물 옆에 이전하게 되었다는 유아원의 안내문뿐.

돌아오는 길에는 풍물패의 흥겨운 풍물가락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미 놀이터에서 한바탕 하고들 살만한 물건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쉬는건지 알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전해들은 바로는 바자회로 5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다른 바자회로 치면 적은 수익이겠지만 어쨌든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다행이었다. 태재원씨의 말에 의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점이라도 해서 몫돈을 벌 생각이란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놀이방.

그 전무의 상태에서도 밝게 웃을 수 있는 이들의 모습.

어디서 그런 희망과 용기가 나오는 걸까.

내일을 생각하며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녕 축복 있으라!

작은 기획

쉽게 배우는 사진·비디오 교실

김태일 / [푸른영상] 연출가

영상시대라고 한다. 다시 말해 영상으로 자기 표현이 가능한 시대라는 뜻이다. 비디오 카메라의 등장은 그래서 엄청난 매체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최소한 불 사람, 관객의 편에서 촬영하고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예기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 카메라 사용은 최소한의 몇가지 원칙과 촬영의 기능적인 것들이 필수적 요소이다.

간편한 카메라는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방송국에서도 중국에 촬영갈 때는 주로 홈비디오 카메라를 자주 이용한다. 방송국 장비로 촬영을 허가받기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가정용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처럼 가정용 비디오의 쓰임새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었다.

초보자가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눈과 기계의 렌즈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눈이 보는 것과 렌즈가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사람이 보는 시야는 아무리 좌우상하로 움직여도 흔들림이나 불안함이 없지만 카메라가 그렇게 움직이면 보는 사람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촬영할 때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안정감있게 촬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좌우상하로 움직일 때도 가능한 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초보자들운 카메라로 촬영할 때 흔히 줌렌즈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상하좌우로 거침없이 움직이며 촬영한다. 고정시켜 촬영하면 무언가 불안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초보자들이 촬영한 테이프를 보면 모두가 똑같다. 줌렌즈의 과도한 사용과 좌우상하로 거침없이 움직임, 이는 자기기 하고 싶은 대로 카메라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보여주기 위해 만든다면 최소한 촬영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며 촬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능한 고정시켜서 촬영하라. 줌렌즈의 사용도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라. 그렇지 않은 촬영은 누구도 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디오가 사진과 다른 점이 바로 카메라의 움직임이다.

대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움직여야 하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결국 초보자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가능한 카메라를 고정된 상태에 두고 최소

한의 움직임만으로 촬영해야 한다. 이 방법이 좋은 촬영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많은 촬영 경험과 숙달을 통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비디오에 내장된 마이크는 동시녹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영상은 그림 뿐만 아니라 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마이크는 사방의 소리가 다 들어가는 무지향성 마이크다. 만약 인터뷰를 촬영한다면 마이크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의 소리가 줄고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는 시중에 나와있는 마이크를 사용해도 잘 들어간다.

별도의 마이크가 없이 인터뷰를 촬영한다면 조용한 곳에서 촬영해야만 한다. 특히 건물안이나 막힌 곳에서 인터뷰 촬영이 바람직하다.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소리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전문가에 가까운 영상을 담을 수 있다.

또 흔히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역광 촬영이다. 대낮에 촬영한 부분이 얼굴이 꺼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인물보다 배경이 밝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카메라는 기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뷰파인더에 역광이면 빛을 등지고 촬영하라. 카메라 렌즈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도 강해지기 때문에 대낮이라도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아니면 촬영장소를 옮겨본다. 역광이 안되도록 움직여서 제대로 나오는 방향에서 촬영해야 한다. 보통 많이 촬영해본 초보자들도 흔히 역광에서 찍는 경우가 많다. 즉 렌즈 안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지 않게 촬영하면 된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 지 확인을 하고 촬영해야 한다.



통신이야기

컴퓨터 통신, 아직도 외면하고 있습니까?

유정은 /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모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싸는가 싶더니 다시금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발까지 훑날린다.

이런 날씨 탓인가?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던 각별한 각오와 희망이 어느틈엔지 스르르 사라지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가 '위축된 나'를 만들어내고 만다. 그렇다고 이런 위축됨이 지속될 순 없다. 세상에 이끌려가는 내가 될 것인가? 아니다. 나에게 세상을 맞춰야 하겠지.

계절에 따른 평균 온도나 습도·풍향 등이 통계적으로 나올지라도 해마다 더 춥다거나 덥다거나 가뭄·홍수의 변수는 항상 존재해 왔다. 사람의 기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미, 장·단점을 통합해 이를 규정짓는 개성이 형성되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들뜸, 충만한 행복 등 특징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이렇듯 날씨나 감정이나 하는 것은 언제나 보편적인 진리와 함께 다양한 변화 또한 따르게 마련이다.

통신이야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날씨나 개인적인 감정의 기복을 서두로 끌어냈을까 의아해 하겠지만 "보편적 진리와 다양한 변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작은 제안"을 통신과 연관지어 사고했으면 하는 까닭이다.

"저는 컴퓨터가 없는데요..."

"컴퓨터 할 줄 몰라서..."

"통신은 어떻게 하죠?"

연구소로 오는 문의전화를 받다보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컴퓨터나 통신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소와 인연을 맺기 이전엔 필자도 또한 이 부류에 속해있으면서 자유자재로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상대방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곤 했다. 혹시 지탁언 선생님들도 시간이 모자라서, 힘에 겨워서, 그 비싼 기기를 소유하지 못해서 등등 여러 이유를 달고서 시대에 뒤처지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지면을 빌어 통신정보의 필요성과 이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굳이 덧붙이자면 통신 이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만한 마음가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선 '정보는 곧 힘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신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통신을 이용하는 이유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다양한 그리고 전문적이기까지 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구미에 맞춰 IP(정보 제공자)들은 이미 책자로 소개되었거나 여기저기를 발로 뛰어다니 입수한 정보를 이용자들의 구미에 맞게 가공하여 통신에 올리고 있다.

물론 이 정도로 통신을 활용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적절한 인택과 단체에 필요한 부분만-만일 풍뎡그려서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요구한다면 거부당하거나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기술의 정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얼마 전 무심코 지나던 육교 프랭카드에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당기자'는 모토가 눈에 들어왔다. 실제로 신문이나 공공매체를 통해 정보의 바다 인터넷, 심지어 아동을 대상화 하는 키드넷까지 언급되는 이 마당에 나와는 별개의 세상을 사는 이들의 언어라고 치부할 것인지?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될리는 만무하다. 현재 내가 가진 기능 수준은 컴맹에 가까운지 아니면 워드만 활용할 수 있다던지, 컴퓨터 활용에 자신이 있다던지... 천차만별일 것이다. 나의 수준이 파악됐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배워서 향상시키는 일이다. 컴맹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컴퓨터회사,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굼직한 기업들은 무료강좌를 년중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기별로 기획되는 컴퓨터 강좌는 여러분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그에 따른 기능을 익혔다면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을 맞춰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자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각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까지 비치되기엔 경제적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렇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해당 전화국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통신 전용-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통신을 통해 교사들의 모임을 활성화 하거나, 동호회를 운영하는 등 정보사회의 선두로 활동 가능한 영역이 우리 모두의 눈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컴퓨터 통신이 멀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지요?

양기있는 자리

보은의 징검다리

김영배

<이순분씨 사망급래> 장수양로원 김이순.

전보를 받아 읽는 순간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의 육체는 아득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절망과 허탈감으로 굳어지며 황급히 택시에 올랐다. 포도위를 달리는 택시가 땅을 주름잡듯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나의 의식은 먼 30년 전의 세월 속으로 거슬러 달려갔다.

구호양곡 배급소 출입문 쪽에 수위실마냥 부설된 여섯자 방은 내가 고학생생활을 하던 추억의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이른 아침과 저녁 무렵의 시간에 주인이 부르는 숫자대로 잠곡과 쌀을 달아 영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과 밤이면 그 미방을 지켜주는 댓가로 면제받고 쌀 한말씩을 받아 자취생활을 했던 곳이다.

연탄이 개발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풍로에 숯불을 피워 남비밥을 지어 먹었고 그 숯불을 피워 내기 위한 밀불감이 여간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어느날 저녁 때였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풍로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밥이 덜 되었는데?”

나는 소스라쳐 일어서 그 여인을 바라다 보았다.

그분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었을 때 그분은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먼저 손수건부터 내밀었다.

“콧등 좀 닦아야겠어 학생.”

나는 그분이 내미는 수건을 받아들임(念)도 없이 곧바로 내 방으로 달려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흡사 숯장수 아니면 함진아비 얼굴 그것이었다.

“평생에 ‘어머니’ 소리 한번만 듣고 죽으면 소원이 풀리겠노라” 하며 두

손을 합장하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었다.

나는 황급히 콧등을 쓸어 내고 있는데 그분은 남비 하나를 들여 놓으며 “맛은 없지만 먹어 보라”고 말하며 되돌아갔다. 그것은 감자찌개였다. 그 찌개에서는 어머니 냄새가 나는 듯했고, 처음으로 보리밥이 구수하게 씹혔다.

나는 그 무렵 새학년 수업료와 책값 때문에 밤마다 우두커니 앉아 하늘만 바라다 보았다. ‘학교를 집어치우고 상록수의 주인공들처럼 살아갈까?’하는 망설임에 빠져서 꼬박 만년의 밤을 새우곤 했다.

이런 밤을 몇 거듭하던 어느날 밤, 달빛 휘황한 뜰을 밟고 그분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분은 내 테이블위에 세 덩이의 밀개떡을 밀어 놓으며 “심심하니 먹어 보라”며 자리에 앉았다. 이제 조금은 낮이 익고 정이 들어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 떡을 때어 먹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떡을 먹기 시작하자 말문을 열어 지난 세월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스물 여덟에 청상이 된 그는 자식 하나 없이 월남을 했고,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옷감 장수를 시작한지 벌써 십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고생살이 일기는 내게 많은 교훈이 되었다.

그는 그 긴 이야기를 차곡차곡 엮어내다가 한동안 침묵 속에 담배를 피워물고는 깊은 숨결로 연기를 품어 내면서 “평생에 ‘어머니’소리 한번만 듣고 죽으면 소원이 풀리겠노라”하며 두 손을 합장하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었다.

그리고는 내 괴로워하는 심중을 짚어내듯, 봉투 한장을 내 손에 쥐어주며 학자금으로 보태 쓰라고 했다. 나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의 간곡한 당부를 뿌리칠 수가 없어 그 봉투를 받아 놓았다. 일금 오천원이었다.

그 도움으로 수업료를 납부하게 되었고 그 후도 한두 차례 용돈을 쥐어주는 바람에 무거워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그분 길을 떠나 기차통학을 시작했다.

눈보라 치던 어느날 새벽, 그분은 정거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찰구로 나오는 내 손목을 덥석 잡은 그분은 나를 대합실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분은 내 상반신을 쓸어 내리며 “외투도 없이 이 추위에...”하며 끝끝 허를 찼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의 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귀걸이고, 이것은 장갑이야. 어서 끼워 봐. 따뜻할거야.”

그는 내 귀에 토끼털 귀걸이를 끼워주고 몸소 뜯은 장갑을 내밀었다.

얼어붙은 귀와 손가락 끝이 정처럼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순간, 나의 눈은 뜨겁게 흐

“내 아들이 내 항상 소원이었던 자네의 손길로 나를 화장하여
갑천물에 띄워주게.”

려지며 “어머니…”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분은 내 목소리를 가로채듯 흐느끼어린 목소리로 “오나, 내 아들이…”하며 나를 일싸
아왔다.

그런데 그해 여름, 6.25는 터지고 그분과 나는 영영 헤어진 때 만날 길이 없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임종 뒤에 나를 부르다니 너무나 아쉽고 한 맺힌 비극이었다.

내가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는 노인들의 눈초리는 차갑게 나를 노려 보았고,
‘세상에 어미를 내뒹고 사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어머니의 시신을 모심절 하는 동안 그들은 지난 날의
내력을 꼬장꼬장 내게 털어 놓으며 혀도 차고 탄식도 했다.

신문에 난, 내 글과 사진을 보고는 “이것이 내 아들”이라고 자랑했다는 어머니, 그렇
게도 보고 싶은 나의 소재를 발견하고서도 자신의 소재는 끝내 내게 알리지 않은 채 떠
나신 어머니.

‘제 핏줄로 나온 자식도 결혼하고 나면 부모를 반대하는 세상인데, 의로 맺은 모자지
간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는 현대인간의 의식구조를 내게까지 적용시켰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료들에게만은 끝내 나를 친아들로 숨겨오신 것이다.

그렇던 그분이 마지막 숨결을 토하며 내게 전보를 쳐 달라 부탁했고, 유서에 하였으
되 “내 아들이 내 항상 소원이었던 자네의 손길로 나를 화장하여 갑천물에 띄워주게”하
였다.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터에서 돌려 받으면서 나는 죄책감 때문에 끝없이 울었다. 회한
과 아쉬움과 죄책감들이 내 가슴을 쥐어 뜯었다.

인연! 참으로 기구한 운보가 아닐 수가 없다.

어떤 이는 소매를 스친 인연으로 하여 한 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생사의 갈림길에서야 만나게 되었을까? 인생의 한살이가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갑천가로 나가 돌부리를 밟으며 강심 쪽으로 들어섰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는 차가운 달빛이 그날밤처럼 교교했다. 그 물속에 비친 둥근 달을 굽
어보며 어머니의 유해를 날려 보냈다.

그 뒤도 모를 뜨거운 은혜의 덩어리가 뉘우침으로 보상되는 순간, 나는 두 손을 모두
고 원앙생 원앙생을 외우고 외웠다. 달빛 속으로 나의 영혼도 까맣게 떠올라 감을 느끼
며 물속에 발을 묻고 서있었다.

... 편미양의 세상읽기 ...

비님, 봄비님이 오시네...

후두둑 또르락 후두둑 또르락-

겨우내 매말랐던 땅에 귀한 비님이 오신다.

이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릴 계절이 왔다고 하지만, 제대로 내리는 비를 본 지 오래라 바삭
타들어간 논바닥을 바라보는 농군들의 가슴만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중이었다. 농사짓는 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남부지방 전체가 급수일
을 정해놓고 물을 받아 쓰는 지경이었다. 봄소식은 본래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법인데, 그러
다 보니 매마른 남쪽에서 파스한 봄소식이 쉽게 올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모처럼 비다운 비가 반갑게 내려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머지않아 봄비 머금고 새 힘 얻은 온갖 것들 푸릇푸릇 돌아나 세상이 그 푸른 빛으로 아
른거리리라. 하지만 잠시의 비감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해마다 가물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말이다. 언제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내린 빗물은 그대로 하
수구 따라 도랑따라 흘러가버리는 예전의 ‘자연의 물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이 열리던 때부터 비롯되었을 자연의 물길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흘러가는 이 길
목에서 더 이상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사람이 물길을 만들고, 산업문명
이 물길의 순환을 마르게 한 까닭이리라. 제멋대로 물을 쓰고 함부로 물을 버리고 자정능력
을 잃게 했기 까닭이리라.

물 쓰듯 쓴다던 그 흔한 물을 석유보다 1.7배가 더 비싸게 사서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
돈으로 치를 수 없는 물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서 빨리 물
길을 바로 잡도록 관계 당국과 업계, 물을 쓰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마
땅하다. 아울러 경계해야 할 것은 물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누구는 마실 물을 받기 위해 사나흘을 기다려야 하는데, 누구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
고, 어느 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곡식을 기르려고 온종일 하늘만 바라보는데 누구는 그
논 옆 저수지의 물을 끌어 골프장 잔디를 가꾸고, 또 어떤 이는 몸에 좋은 광천수 먹으려고
수돗물도 없는 마을의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횡포를 부리지 않는 말
이다.

선생님들, 우리네 아이들이 양치질 할 때면 쓸만큼만 자기 컵에 물을 받도록 가르치시죠?
선생님 몰래 물장난 하는 아이들에겐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가 닳도록 말씀하지죠?

지금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는 천년전 조상들이 가꾸신 물이라네요, 천년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기로 해요!

막아△별곡

꽃망울놀이방에서 생긴 일

이야기 이나 - 열상

지아(6세)와 휘인인 친척이지만 항상 싸운다.

저녁무렵 자유놀이시간에-100원짜리 뽑기해서 생긴 반지(알도 다 빠진 반지다)를 지아가 휘인에게 주며 하는 말

지 아 : 휘인아, 선물이야. 가져.

휘 인 : 고마워.

지 아 : (잠시후 본전생각이 났는지) 내내! 거짓말로 준거야. 내내!

휘 인 : 싫어.

계속되는 실랑이를 중재하기 위해 옆에서 보던 이모가 끼어들었다.

이 모 : 지아가 선물했잖아. 선물한 거 치사하게 달라고 그러니? 치사하다!

지 아 : 그냥 거짓말로 준거야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살건데. 빨리 줘.

지아의 거창한 설명에 납득이 갔는지 그에 상응하는 제안을 휘인이가 내놓았다.

휘 인 : 그런 내가 결혼하면 반지 주면 될 거 아냐!

이야기 둘 -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렇지...

아침 일찍 놀이방에 온 휘인이(5세)와 유림이(5세).

미끄럼틀 안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다.

유 림 : 우리 아빠 무섭다.

휘 인 : 우리 아빠가 더 무섭다.

유 림 : 우리 아빠 주머니에 칼 있다.

휘 인 : 우리 아빠는 더 큰 칼 있다.

유 림 : 우리 아빠는 칼 다섯개 있다.

휘 인 : (가만히 듣고 있더니) 왜?

유 림 : ...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나 어저께 언마가 통싸라고 했는데 방구졌다!

이야기 셋 - 꼬마 선생님

아이들이 유난히 신나게 놀던 어느 오후였다.

아이들은 얼음뎡, 귀신놀이 등을 하느라 얼굴은 발그레, 앞머리는 땀에 젖어 두 눈을 가지고 아무튼 무지 열심히 놀고 있었다.

그때 이모 옆에서 암전히 소꿉놀이를 하던 유림이(평소 유림이는 뛰어다니는 활동을 별로 즐겨워 하지 않는다) 하는 말

유 림 : 애들아! 이리 와서 땀 좀 식히고 놀아나.

육아일기

승필이가 놀이방에 가요!

박정애 / 본회 조직선전부장

2월 ○○일

저녁에 지역모임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특히 우리 동네에서 계획하는 '일본 부락해방 운동 지역연수'팀 1차 교육이 있는 날이어서 기대가 된다.

따르릉~

승필이 아빠가 일 때문에 늦는다. 아이고 오늘 모임은 땡이구나.

예전엔 남편이 늦는 날엔 승필이를 데리고 모임에 나가곤 했는데 요즘 들어 승필이의 행동반경이 커져 모임에 크나 큰 지장을 주어 저녁내내 승필이의 요구사항인 책 읽어주기, 구슬꿨기, 블럭놀이 등을 함께 하며 난 지쳐가고 있었다.

드디어 눈을 비비며 머리를 긁는다. 졸립다는 신호.

자리에 눕히고 등을 토닥거린다-승필이는 잠들 때까지 아빠도 안 되고 내가 꼭 등을 토닥거리 주어야 한다.

장난을 하고 싶은지 뽁뽁글글하며 온갖 재롱을 편다.

"승필아, 엄마가 노래 해줄까."

"응"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울동을 해가며 재미나게 불러준다. 까르르 웃는다.

손 잡는 시늉, 먹는 시늉, 특히 '구멍이 뚫리는'에서 손가락으로 몸을 쿵쿵 찌르는 순간엔 자지러진다. 2번, 3번, 4번 계속 해달라 한다. 나의 울동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고 노래소리도...

승필이는 손을 입에 갖다대며 "아아"한다. "크게 부르라고?" "응"

"승필아, 엄마가 다른 노래 불러줄게. 삐약 삐약 병아리" 강하게 머리를 젓는다.

"그래 그래 알았어. 나뭇가지에" 이번엔 손을 둥그렇게 머리에 대고 옆으로 벌린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넌 엄마가 좀 편한 꼴을 못보니."

다시 몇 차례의 솜사탕 노래와 울동, 승필 하품을 크게 하며 돌아눕는다. 손은 엉덩이에 댄다.

"그래 우리 승필이 자자"

토닥거리 준다.

5분후 승필이의 거친 숨소리, 드디어 취침.

나에게 하루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다. 신문이나 좀 볼까.



2월 △△일

지택연 조직부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난 승필이 보육문제로 근심걱정과 안타까움, 우려 등등에 휩싸이게 된다. 다행히 지역내 송학마을(2월호 참조)안에 있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송학놀이방에 맡기게 되어 한 시름 놓았다.

수녀님과의 면담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 24개월 이상이 보육연령인데 내가 반강제적으로 떼를 썼다.

"승필이가 아이들 열 문을 할거예요."

"집에 계시는 분이면 안 받죠. 정애선생님이 일하신다니까 수녀원에서 다 각오하고 있어요."

"수녀님, 건방지지만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해 보세요."

"승필이를 거의 제재하지 않고 키웠어요. 첫 애이고 제가 (보육)경험이 있다고 아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 다 하도록 했거든요. 수녀님도 승필이 아시잖아요. 아이가 좀 부산한 면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강하게 거부하곤 해요. 놀기는 잘해도. 규율이나

규범은 이제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자유롭게 커서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는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다 놔두어요. 다만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던지는 것은 호되게 못하게 해요. 진열해 놓은 것 실컷 만지고 섞으면서 놀아도 그냥 두다가 치울 때 확실하게 치우게 해요. 전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바깥놀이 많이 하게 해주셨으면 해요-문을 열면 놀이터가 있다. 승필이는 바깥놀이, 물놀이 등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전 승필이가 하루종일 놀이터에서 놀아도 좋고 봐요. 하지만 여기 일정이 있으니 전체적인 바깥놀이 시간외에 승필이가 원하거나 엄마를 찾으면 허용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아주 추운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 외엔 점심먹고 바깥놀이를 합니다. 아이들 오전 수업시간에 승필이는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시간엔 한 선생님과 놀이터에서 놀게 하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놀이방 문을 나오면서 난 기분이 뒹박죽이었다.

승필이가 나랑 떨어져서 잘 놀 수 있을까?

하루종일 이거 저거 해달라 할 텐데 수녀님들이 다 받아줄 수 있을까?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서적으로 나쁘진 않을까? 등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기적인 엄마란 생각에 씁쓸했다.

내가 보육현장에 있을 때 엄마들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와 감정이 잘 생 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같이 요구했을 땐 난 속으로 아이를 아이의 시각으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보단 참 이기적인 엄마라 여겼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처녀적 내 교사생활에 혹 엄마들의 심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되새겨본다.



우리들의 목소리

기 다 림

나은미 / 오손도손놀이방

추운 겨울에는 꽃 피는 봄을 기다린다.

출근길 막 떠나는 버스를 보면서 다음 버스가 오길 기다린다. 약속시간이 다가오면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라며 기다린다. 저녁식사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함께 먹을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런데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동반한 기다림이어서 그런지 불안, 초조한 마음에 지겨움까지 더한다.

기다림의 하나는 오손도손놀이방의 새로운 보급자리이다. '95년 하반기 내내 많은 고민속에서 놀이방을 살리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고 지난 2월 15일 10명의 아이들을 졸업시킨 후 이전장소를 물색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우리의 조건에 맞는 공간이 나타나질 않아 모처럼 아이들을 떠나 쉬고 있는 하루하루가 그리 마음 편한 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의 탄생이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맞이하고픈 심정이다. 아기가 아무 탈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낳아 불려오는 때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얼마전 정기검진시 초음파검사 결과 아기의 성장이 2주정도 늦어 예정일이 두주 정도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녁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난 여름부터 기다려온 예정일이었는데, 하루도 아닌 두주나 더 기다리다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생각뿐이다.

이렇게 그 기다림이 짧던지 길던지, 특정한 것이던지 막연한 것이던지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러나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잘 참고 슬기롭게 보낸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밝게 웃을 기다림의 끝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려다.

영락이가 졸업하면서...

이혜숙 / 꽃망울놀이방 자모

몇년 전부터 꽃망울 놀이방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옛되게 생긴 아가씨들에게 아이를 맡기기는 좀 그랬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권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지 1년이 된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아이는 일요일에도 어린이집에 가려고 한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이모들도 쉬어야 한다고 말리지만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이모들에게 달려가곤 한다. 졸업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놀러와서 놀고 졸업생 자모가 김치를 담궈주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 이모, 삼촌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 짐작이 간다. 끝날 시간이 되면 아이를 집에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데리러 갈 때까지 저녁 먹이고 아이를 돌봐줄 때에는 이모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생각까지 든다. 이제는 우리 영락이가 7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쫓겨(?)나게 (놀이방에서는 6살까지만 아이들을 돌본다) 되었는데 유치원에는 가지 않고 이모들한테만 간다고 하는 영락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 지 고민이다.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따뜻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마음 든든하고 뿌듯하다.

보육계몽양

'96 제1회 열린강좌 "교사를 위한 사진 기초 강좌" 열릴 예정

교육부에서는 회원을 위한 정기강좌와 함께 비회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로 열린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첫 열린강좌는 멋진 원아사진 촬영과 교육매체로서 사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교사를 위한 사진 기초강좌'를 개최한다.

일시: 1996년 4월 12일~ 6월 7일(매주 금요일)
오후 7시~ 9시

아외 촬영 2회(일요일)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
(3호선 동대입구, 2,4호선 동대문운동장)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인원: 20명 선착순

참가비: 100,000원(재료비 별도)

정회원 20% DC, 자료회원 10% DC

신청: 팩스, 전화등으로 신청

(이름, 주소, 경력 등 반드시 기입)

입금 후 접수 확인

내용: ①카메라 설명(렌즈, 필터, 셔터, 조리개)

②필립(현상, 인화, 종류)

③라이팅

④인물사진

⑤풍경사진

⑥사진구도

⑦작품평가 및 감상

⑧2회 아외촬영(민속촌, 동물원)

준비물: 수동카메라

문의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화:275-8505~6 전송:275-8506)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예비원장들에게 시설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을 도와주고 보육사업의 바른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을 도와주고 보육사업의 바른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를 마련한다.

일시: 1996년 4월 18일(목)

오전반-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오후반-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

대상: 5인~ 39인 아동을 돌볼 보육시설 운영

예정자

인원: 오전·오후반 각 40명 선착순

참가비: 25,000원(교재대 포함)

신청: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

(이름, 주소, 경력 등 기입)

참가비 온라인 입금. 입금 후 접수 확인

내용: 보육사업 개론

설치 인가 신청/신고서 내기전에 알아두

어야 할 법과 지침

설치계획 세우기: 지역선정, 예산 등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와 운영방침 세우

기

일과구성과 분반, 교사 채용

필요한 비품 저렴하게 구입하기 등

입금 계좌: 예금주 서정은

우 체 국 010231-0047916-12

한일은행 170-160275-12-001

농 협 360-02-026990

서울은행 29504-2040202

조흥은행 371-06-158968

상업은행 134-08-027207

문의: 한국 보육정보연구소

TEL. 02-268-3954 / 271-1547~8

FAX. 02-271-1548

봄나물캐기 대회

자연친화의 감성을 일깨우고 도시인 정서 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자연의 삶을 사는 벗들의 모임'의 연례행사이다.

주관: 자연의 삶을 사는 벗들의 모임

(02-736-2901)

후원: 자연의 벗 사업부

일시: 1996년 4월 21일(일)

장소: 가평 부근

신청: 미리 미리 전화해 주세요

입금선착순

참가비: 10,000원

포상: 가족 참가상 - 가장 많은 가족

단체 참가상 - 공동체의 결속력

다량 수확상 - 가장 많은 량

다종수확상 - 가장 많은 종류

환경대상 - 봄나물 캐러다 쓰레기를 주

웠습니다.

'96 제1회 지탁연 회원강좌 '전래놀이 워크샵' 마련

회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의 장으로 회원강좌를 4월에 시작한다. 회원의 탁아활동과 교육활동에 이론적, 실천적 도움을 주고자 준비되었기에 많은 회원들의 참가가 요구된다.

첫회로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을 주제로 3,4세의 유아가 할 수 있는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지역별로 전래놀이 연구 소모임이나 국악놀이모임 등의 많은 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일시: 1996년 4월 20일(세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경동교회 교육실

대상: 지탁연 정회원, 개인회원, 자료회원

(정원 미달시 비회원 참가가능)

강사: 놀이연구회 총 "유아놀이분과"

참가비: 7,000원(비회원 10,000원)

접수: 전화 신청하고, 회비 입금 후 접수 확인

준비물: 유아놀이분과에서 가져가는 놀주머니,

신나게 구르거나 뒹 수 있는 편안한

차림

내용: 1. 교구이용 및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 칠교

- 산가지

- 고누

- 세세세

- 실뜨기

- 옷놀이

- 투호

- 하나 둘(구슬놀이)

2. 실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 남대문 놀이

- 꽃따기 놀이

- 알까기 술래잡기

- 가위 바위 보 엮어주기

- 병신 술래잡기

- 어깨동무

- 여러가지 씨름

- 제기차기

문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02-275-8505)



△식과 △식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2회 한국여성대회 열려

3월 9일 오후 2~5시 세 시간동안 (사)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제12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이 열어 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로!"는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에서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오숙희(방송인), 김숙임(여연 문화홍보위원장) 두분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여성민우회 주부 풍물패 단비의 풍물과 각 회원단체 입장식으로 시작했다.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로"비디오 쇼, 전북여성농민노래단, 안혜경, 류금신의 노래공연, 가정폭력 상황극, 1분 발언대 등의 문화행사가 치뤄졌다. 또한 여성의 권익에 걸림돌 5인과 디딤돌 5인을 선정, 발표하여 디딤돌로 선정된 서울대 우조교, 조순 서울시장 등 5인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한국여성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음을 알리는데 헌



신적인 활동을 한 일본인 변호사 도즈카 에츠로우씨가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한국여성대회를 통해 올해 여성운동의 과제를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온전히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소멸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복지 인권으로 시대로 가지위한 노력을 할 것을 선언하며 대회의 막을 내렸다.

제 15대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 여성 정책 공청회 개최

3월 18일(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5대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의 여성정책에 관련한 공약 공청회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정당측으로는 정옥순 신한국당 여성국 부국장, 안상남 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위 부위원장, 임금자 민주당여성특위부위원장이 참석하여 당의 여성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는 관계여성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부분,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분, 여성 인권부분, 아동보육, 방과후 아동보호 및 학교급식에 대해 관련부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위양자 부회장이 참가하여 방과후

아동보호 및 학교급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3월 14일(목), (사)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영삼정부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정부차원에서 전개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고용안정 현황과 과제, 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학령전후 아동보육의 현황과 과제, 여성농민의 현황과 과제,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 총괄평가와 주무부서의 문제에 대해 관련단체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의 논찬이 있었다. 본회에서는 남미영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령전후 아동보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6년 3월 7일(목), 정무장관(제2)실은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에서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와 과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최근 보육과 교육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과후 아동지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시간 탁아소운영의 필요성과 전망에 관한 세미나 개최

3월 15일(금) 낮 1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 "24시간 탁아소"는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24시간 탁아소운영의 필요성과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랑의 전화"24시간 탁아소"에서는 가족기능을 회복시켜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반가정아동은 물론 해체가정의 부모기능을 대신 담당해 주도록 노력해온 기관이다.

당일 세미나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탁아의 필요성, 아동복지와 24시간 탁아의 필요성, 24시간제 시범보육시설 운영계획, 24시간 탁아소운영의 실제 사례등에 대해 관련 교수와 공무원의 입장과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아직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24시간 탁아의 대상인 아동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연구에 관한 논의가 세미나에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김덕환 선생님, 6월에 있을 일본 보육 교사연수단 준비자 서울 방문

3월 18일 일본 성화복지관의 김덕환 선생님과 일본 보육교사 2인이 본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작년에 있었던 본회 일본연수 후속작업으로 이번에는 일본에서 한국보육연수를 6월에 올 예정으로 있으며, 김덕환 선생님과 일본 보육교사 2인의 방문은 이 연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와 연수할 시설들을 방문하였다.

한문건강교육원(평화대학)의 전문연구 과정 교육시작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실천에 실마리를 제공했던 한문건강교육원의 기초, 입문과정 이후 전문연구과정이 1996년 3월 16일로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전문과정에는 기초, 입문과정을 거친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1년 과정으로 총 4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문과정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보육현장의 살아있는 교육과 보육을 일구어내겠다는 의욕이 대단한데, 이후 필요할 때마다 본지에 중요내용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본회 회장단, 민보련 회장단과 보건복지부 방문

본회 남미영 회장, 임남희 부회장, 서정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한숙희 회장과 김명미 사

무국장,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박정혜 회장과 함께 3월 15일(금)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면담에서는 본회 신임 회장단 상견례차 이루어진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보육시설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정기 회원강좌 매월 홀수달 개최 예정

본회 교육부에서는 회원 정기강좌를 홀수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 정기강좌는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며, 이번 정기강좌의 경우 3월에 강사섭외가 되지 않아 부득이 4월에 하게 되었다. 4월 회원 강좌는 전래놀이 워크샵으로 놀이연구회 유아놀이분과에서 준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5월 회원교육강좌는 5월 25일에 윤서영 선생님을 모시고 독일의 보육현황이 주는 한국 보육에 주는 시사점(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강의를 준비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5월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 사람들 ※

• 축하드립니다.

광주 우리동네아기둥지의 박윤 선생님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밝은 내일, 기대합니다.

•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옥(25세) 선생님, 김은숙(25세) 선생님이 새로 전주 일터 아가들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주연(22세) 선생님이 전주 금암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윤정 교육부장의 후임으로 최순옥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최순옥 선생님은 부천 본뜬이어린이집에서 근무하셨으며 부천 지역대표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기원합니다.

만나게 되서 반가워요.



※ 연입의 3월 월동일지 ※

- 3/ 1 서울경인지역 자활대표자회의
- 4 집행회의
- 보육사업 지침 분석모임
- 6 편집회의
- 어린이날 행사준비모임
- 교육계획안팀 모임
- 8 서울지역 교육단체 연석회의
- 9 제12회 3.8한국여성대회
- 11 집행회의
- 서울경인지역 책임교사분과회의
- 12 교육계획안팀 모임
- 교육연구부 모임
- 13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회의
- 어린이날 행사 준비모임
- 14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회
- (남미영 회장 발제)
- 보육사업 지침 분석모임
- 15 보건복지부 방문
- 16 사회복지학 소모임
- 18 김덕환 선생님 본회 방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각 정당 여성정책 공청회'(위양자 부회장 발제)
- 19 지방지역대표자회의
- 20 편집회의
- 21 보육사업 지침 분석모임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22 서울지역 교육단체연석회의
- 23 자원활동가대표자회의
- 25 확대집행회의
- 서울경인지역 책임교사분과회의
- 26 여연 조직위원회 회의
- 30 지방 평교사분과회의
- 사회복지학 소모임

편집부에서

* 이번호는 쉽니다.

정희연님의 [영국유학기]가 [우리네 아이들] 제작일정내에 도착하지 않아 신지 못했습니다.

5월호에 다시 이어서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영국유학기] 많은 기대 바랍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내주시시오.

6개월 : 백주화님

1년 : 노수산, 정순옥, 김성진, 이종남, 황신자, 정은숙, 신복수, 현운애, 김정희 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이영학님, 25,000원이 어떤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회원 회비라면 빠른 시일내로 회원신청을 하시고 입금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작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에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박한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 앉는다.

산동네엔 보기 드문 마당 있는 집.

한쪽 모서리를 빼고 빼곡히 들어선 집들이 눈이방 배경의 전부이다.

...

문득 농었다. 아주 자주.

내가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네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 혜면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는 우리 가족.

지택엔 조직선전부 일에 적응하나,

그동안 변형된 보육 전반에 적응하나,

익히는 여성으로서의 각종된 육아, 가사에 적응하나

난 무척 힘겹고

우리 남편, 우리 송평이도 변형된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든가 보다. - 정애

한 발은 빼고 다른 한 발은 아직 집어 넣고.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희지를 편집한다.

정제하여 있지 않은 생칼이, 빼놓은 한 발이 나을 무척이나 게으르게 하지만 마저 빼지 않고 집어 넣은 한 발이 그나마 나을 움직이게 한다.

그적저적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 미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 취업알선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 면학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더 나은 보육사업 발전을 위
해 보육사업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은 물론,
선생님을 구하려는 어린이집, 놀이방과 아동보육에
뜻이 있는 예비선생님들을 연결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

본 연구소로 직접 취업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
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모집분야 : 보육교사 1, 2급 자격(인정증 소지자, 영양사등 기타 종사자
- 알선시설 : 전국의 국공립/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
- 알선 및 상담비용 : 무료
- 직접 신청 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발송후 전화신청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서울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TEL. 02)268-3954 / 271-1547~8

FAX. 02)271-1548

ID. KDIRBEO(하이텔) ZPIBABY(천리안)

문의전화 : **02)268-3954**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서비스 안내/교사구인신청/
시설구직신청/보육정보 및 자료신청